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만 규 교수 지도  
석사학위논문

제주 재림교회 초기 선교사의  
일 연구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역사전공

고 수 림

2000년 1월

오 만 규 교수 지도  
석사 학위 논문

제주 재림교회 초기 선교사의  
일 연구

이 논문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1월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역사전공

고 수 림

# 고수림의 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 한 성 보 (인)

부 심 : 권 만 복 (인)

부 심 : 오 만 규 (인)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년 12월

## 감사의 글

지금까지 크신 사랑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오만규 지도교수님과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여러 신앙의 목격자 되신 분들, 학업에 열중하도록 이끌어주신 안금영 신학대학원장님과 이종근 교학과장님, 아울러 1년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신 엄보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모아 정리를 함께 해준 김혜진, 원지영, 장은복 양과 여러 해 동안 안에서 믿음으로 보필해 준 아내와 건강하고 맑게 잘 자라준 두 아들 영우와 영현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길 빌며, 아울러 어려운 중에서도 지금도 교회를 사수하고 가꿔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이하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좀더 많은 분량으로, 양질의 것으로 보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한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많으나, 지난 제주도 지역 재림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고 회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2000년 1월

## 목 차

감사의 글 .....	i
목 차 .....	ii
I. 서론 .....	1
A. 문제의 제기 .....	1
B. 연구의 목적 .....	2
C. 연구의 방법 및 제한 .....	2
II. 제주도의 환경 .....	3
A. 제주도의 지리 .....	3
B. 지형과 지세 .....	4
C. 기상 .....	6
D. 역사 .....	8
III. 제주도의 향후 발전 계획 .....	9
A. 계획의 배경 .....	9
B. 주요 계획 내용 .....	11
1.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의 진흥 .....	11
2. 사회 간접자본 확충 .....	11
3.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	11
4. 교육, 문화 및 체육의 진흥 .....	12
5. 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	12
6. 환경오염관리 .....	12
7. 수자원개발 및 보전 .....	13
8. 관광개발 .....	13
IV. 제주도 내 재림교회의 역사 .....	14
A. 모슬포 교회 .....	15
B. 제주 중앙 교회 .....	22
C. 성산포 교회 .....	25

D. 한림 교회 .....	30
E. 광지 교회 .....	32
F. 함덕 교회 .....	34
G. 서귀포 교회 .....	35
H. 표선 교회 .....	38
I. 어음 교회 .....	39
J. 선인동 교회 .....	39
K. 제주 학원 교회 .....	40
L. 신제주 교회 .....	40
M. 신서귀포 교회 .....	41
V. 제주도 지역 재림교회의 발전에 관한 분석과 평가 .....	42
A. 대내적인 면 .....	42
B. 대외적인 면 .....	43
C. 발전방향 .....	43
VI. 결론 .....	44
A. 요약 .....	44
B. 제안 .....	45
C. 결언 .....	46
부    록 .....	47
참고문헌 .....	87
초    록 .....	89
Abstract .....	91

## 표 차 례

1. 계획의 주요 지표 .....	10
2. 투자계획 .....	10
3. 제주도 각 지역의 인구 현황 .....	11

4.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예측 .....	12
5. 매서원의 보고 (제주관련 인물 실적 분석 표) .....	57
6. 수입금액보고(제주관련 인물 실적 분석표) .....	58
7. 안식일학교 통계표(제주관련 실적 분석표) .....	59

### 부 록 차 례

1. 제주관련 교회지남 소식 .....	47
2. 제주관련 호남합회 행정위원회 의사록 .....	60
3. Chaiju Island, Korea .....	71
4. 제주관련 주요인물 .....	77

# 제 1 장

## 서 론

### A. 문제의 제기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sup>1</sup>가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된 지 약 9년 후 호남지역 최초의 교회가 제주도 신창리에서 생겨난다.<sup>2</sup> 다른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문서전도인에 의하여 복음의 불꽃이 당겨졌고 그 불꽃은 이내 제주도에만 7개의 교회를 만들어 내게 하였다. 제주 지역 재림교회는 또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 냈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한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주님께 헌납되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오랜 교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아닌 쇠락의 길로만 나아가게 되었고 꼭 있어야 할 교회의 역사 기록마저도 전무한 상태에 이르게 되니 일단은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본 논문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다음의 3가지 내용으로 대별하여 본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1. 제주 지역의 일반적 배경
2. 제주도의 향후 발전 계획
3. 지역별에 의한 제주 지역 재림교회의 발생과 역사 전개 과정

---

<sup>1</sup>이후 재림교회라 약칭한다.

<sup>2</sup>이영린, 한국재림교회사 (서울: 시조사, 1965), 255.

## B. 연구의 목적

제주 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 지리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연구하고 아울러 재림교회가 전래된 경로를 분석하며 발전과정을 연구하고 정리함으로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자 함이다.

## C. 연구의 방법 및 제한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의 각 교회를 중심으로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을 가진 당시 인물들과 그 후손들을 면담하고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각종 기록<sup>1</sup>, 그리고 각 교회의 녹명책과 연혁에 근거하여 정리하며 조사 연구하였다.

---

<sup>1</sup>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관지인 교회지남과 이영린의 한국재림교회사, 호남합회의 총회보고서, 한국연합회 재단 법인실 등의 자료들을 인용하였다.

## 제 2 장

### 제주도의 환경

#### A. 제주도의 지리

제주도는 한국 남단에 위치한 가장 큰 섬으로 목포와 146.4km, 부산과는 271.9 km 일본의 대마도와는 255.1km 쯤 떨어져 있으며 인구는 1996년 현재 총 519,394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sup>1</sup>

제주도의 북은 제주 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의 남해안과 대면하고 있고, 동은 남해 및 대한해협과 동지나해를 두고 사이에 두고 중국본토의 상해와 대면하고 있다. 제주도의 중앙 경선<sup>2</sup>과 같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의 주요 도시들로는 목포, 군산, 인천, 남포등이 있고 제주도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도시들은 일본의 후쿠오카, 중국의 시안, 이라크의 바그다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북부아프리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한국의 화산도로(화산도) 북쪽의 제주 해협과 동쪽의 대한해협, 쓰시마 해협, 서쪽으로는 중국해와 인접해 있다. 동서의 길이가 총73km이고 남북의 길이는 41Km로 타원형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

<sup>1</sup>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2), 3425.

<sup>2</sup>상계서. 제주도의 중앙 경선은 동경 126도 331분으로 한반도의 중앙 경선 127도 27분에 비해 약 58분 서쪽에 치우쳐 있다.

<sup>3</sup>제주도청 관광과, 제주관광메뉴얼 (제주: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95), 14, 15.

한국최대의 섬인 제주도의 면적은 1,826km<sup>2</sup>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가장 면적이 작은 도(道)이다. 이 면적은 전체 남한 면적의 1.8%, 경상북도의 10분의 1, 충청북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타지역 큰 섬과 비교하면, 제주도의 면적은 거제도의 5배, 울릉도의 25배이다.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제주도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극동 3국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러한 관계로 예로부터 국제적으로 중요한 거점대상이 되어 왔다. 고려 충렬왕 원년(1275년)에는 원의 탐라 총관부가 설치되어 1세기 이상이나 일본정벌의 본거지가 되었었고, 일제 시의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많은 군사시설이 설치되었으며, 해방 후 한국 동란시는 육군 제 1 훈련소가 설치되는 등 역사적으로 제주의 국제적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sup>1</sup>

## B. 지형과 지세

제주도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후면에 위치하는 거대한 화산도이다. 신생대 제 3기말부터 신생대 제 4기에 걸친 화산활동의 산물로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화산 지형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질시대에 비추어 보면 그 생성역사가 짧기 때문에 유년기에 속하므로 원지형이 잘 보존된 편이다. 제주도의 중앙부에는 이 섬의 형태를 결정하는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어 제주도 전지역의 지형을 지배하게 된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 뻗어있는 한라산 사면에는 360여 개의 기생화산이 산재하여 화산 산지의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평면도상 형태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장축의 방향은 한반도의 남해안 선과 나란히 한 위치이며, 한반도 산맥방향의 하나인 요동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 서사

<sup>1</sup>고정일 외 다수, 한국세계백과사전 (서울: 동서출판사, 1992), 14:182.

면은 매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남 북사면에서는 이보다 약간 급한 경사를 갖는다. 전체적으로 보아 실드 화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스피테형 화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하천들 대부분은 남류하거나 북류하고 있다. 이는 남북사면에 비해 경사가 완만하고, 긴 사면과 넓은 용암지대가 발달한 동서사면에서는 용암류에 의하여 매몰되어 수계의 발달이 훨씬 빈약한 때문이다.

하천의 수원은 1,400~1,600m 지점에서 발원하고 있다. 유로는 직선적이며 V자형 계곡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지대에 이르기까지 하각작용이 매우 활발하여 유년기지형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상의 특성과 유로상에 있는 투수층과 하상에 발달한 주상절리 등에 의하여 하수는 북류하여 대부분 건천을 이루고 있다. 남류천은 22개, 북류천은 18개이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제3기 지질의 사화산 한라산이 있으며, 산정에는 백록담이라는, 예전에 분화구였던 못이 있다. 산세가 완만하여 사방이 바다에 이르며, 지표면을 흐르는 냇가 없고, 해안선 총 253Km 를 따라 지하수가 솟는 용천이 발달해 있다. 이로 인해 장마철에는 격류가 심하고 날이 개면 다신 건천이 형성된다. 해안선은 매우 단조롭고 단순하여, 단벽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해안선의 굴곡이 적어 천연의 양향이 적다. 산지포, 성산포, 한림항, 서귀포 등에서 기선이 출입하고 있다.

조석간만의 차는 남해안과 비슷하나 동해안 보다 크고 서해안보다는 작은편이다. 지면은 대체로 현무암이며 흑색 화산암과 석영, 용암의 풍화작용에 의해 화산재로 덮여 있다. 후기 화산활동의 결과로 생긴 대부분의 화산구들은 화산단계에 있으나, 성산층, 화순리층에 퇴적기에 형성된 화산구들은 플라네즈 형태의 단계로 개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용암굴이 제주도에 전역에 걸쳐 고루 분포,

세계적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속도서 중 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가도, 추포도, 가파도, 마라도 등 8개는 유인도이며, 54개의 무인도가 있다. 연평균 기온은 15.5도 연평균 강수량은 1819.9m이다.

### C. 기상

제주도는 근해에 난류가 흐르고 있어 전국 어느 지방보다 기온이 따뜻하며 한서의 차가 적은 난대성, 해양성기후를 보인다. 기온은 연중 따뜻하여 연평균 섭씨 4.8도로 전국에서 연중 기온 차가 가장 적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많지 않다. 그러나 제주도는 풍다(風多)의 섬답게 바람이 그칠 날이 없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자주 불고 심할 때는 초속 20m까지 불게 되므로 체감온도가 낮아 실제온도에 비해 몹시 추위를 느끼게 된다.

연평균 풍속은 초속 4.8m이다. 제주도의 바람이 센 것은 북쪽 대륙에서 주기적으로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고기압이 팽창하여 제주도 근처의 기압 분포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겨울이 아니더라도 이 것은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과 저기압이 지나가는 길목이 되는 수가 많아 한달에도 몇 차례씩 태풍이 불기도 한다. 곧 제주도는 전국에서 바람이 부는 시간이 가장 길고 비도 많이 오는 곳이 된다. 그런 만큼 날씨가 꽤 변덕스럽다. 한해에 줄잡아 겨우 50일쯤 활짝 개고 120일쯤은 비가 오는데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까지, 9월 상순과 하순에 대체로 장마가 진다. 그리고 소나기가 유별나게 잦다. 강수량은 한라산 북쪽지방이 연간 1530mm 쯤이어서 한반도의 남쪽지방과 비슷하나, 평균기온이 북쪽지방보다 이삼도쯤 높은 한라산 남쪽지방은 강우량이 1,600mm에서 1800mm까지 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제주도는 철의 변

화가 뚜렷하지 않으나 그 특성이 있다.

봄철에는 대륙성고기압의 기운이 약해짐과 함께 이 고기압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커진 양자강기단이 자주 한반도를 지나가고, 한편으로 만주 북서쪽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북부를 지나가므로 흐리고 구름이 끼는 날씨가 대체로 많다. 그리고 봄철바람은 대체로 센 편이어서 배가 끊기는 수가 더러 있다. 제주도에는 봄이 한반도의 중부지방보다도 20일쯤 빨리 와 3월하순 무렵부터 꽃이 피지만 날씨가 음산해서 4월이 되어야 봄을 느낄 수 있다. 2월부터 유채꽃이 피기 시작해서 4월이면 진황색의 물결이 넘실거리지만 한라산 꼭대기에는 5월까지 눈이 녹지 않고 남아 있다.

여름철에는 특히 강우량이 많다. 6월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는 오호츠크해 기단이 나타나 제주도 근처에서 북태평양 고기압권을 밀어내는데 두 기압권 사이에 장마전선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국 내륙지방에서 생긴 저압부로부터 저기압이 잇달아 생겨 이 전선이 제주도 근처로 다가오므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는데 이 전선이 발달하면 이처럼 비가 많이 내리나 이와 반대로, 그런 경우가 드물기는 해도, 고기압권인 오호츠크해 기단이 발달하면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 그러나 7월 하순부터 태평양 고기압이 밀려와 어느날 갑자기 날씨가 개어 기온이 섭씨 20도에서 26도까지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를 맞는다. 이 때에는 한라산 때문에 궤엔현상 즉 산을 넘어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내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가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고 다시 장마전선이 다가옴과 함께 태풍이 휘몰아쳐 애써 가꾼 농산물을 크게 망쳐 버리기가 일쑤이다. 9월에는 비가 몹시 많이 내리고 또 서리도 내려 날씨가 흐린 편이다. 그러나 10월부터 장마전선이 태풍과 함께 물러가 11월 중순까지는 기온이 평균 섭씨 15도 안팎이 되어

한해 중에 가장 많은 날씨가 계속된다.

겨울철에는 한랭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가 비치는 시각이 20%가 채 못되며 달마다 보름쯤은 흐리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하루걸러 폭풍이 분다. 또한 겨울철의 눈은 고도 2백m이하의 해안지대에서는 쉬 녹아버리기 때문에 별로 쌓이는 일이 없다.

#### D. 역사

상고시대에 고부량의 삼성신이 탐라국을 세웠고 그후 백제 신라에 종속, 고려 조선 왕조를 거쳐 고종 때는 목사 군수 도사를 두었었다.

제주도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도이, 동영주, 주호, 탐로라, 섭라, 탁라, 탐라, 제주 등으로 불려 왔다. 고려사의 지리지에 따르면 3성의 개별설화가 전해지나 정확한 연대는 전하지 않고 있다.

신라때 고을나의 후손인 고후의 3형제가 신라에 내조하자 왕이 각각 성주, 왕자, 도내의호를 주고 국호를 탐라라 하였다고 한다. 그 뒤 국호를 탐라라 하였다. 그 뒤 498년 백제에 예속되었다가 661년 신라 문무와 1년에 신라에 예속된 후 한때 원나라의 목마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 때의 영향으로 제주도의 석장, 언어, 풍습 등에서 몽고적 요소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295년부터는 제주라고 불렀다. 1416년 태종 16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을 두어 3읍제를 실시하였다. 그 뒤 1864년 고종 1년에 전라도 관찰사의 관할 아래 두었으며, 1905년 대정군과 정의군을 제주군에 병합할 때 추자도를 완도군으로부터 제주군에 편입시켰다. 15년 일제에 의해 도제가 실시되면서 행정구역의 명칭도 전라남도 제주도라 하였다.

## 제 3 장

### 제주도의 향후 발전 계획

#### A. 계획의 배경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추진(1985년~1991년)으로 제주도내 대표적 산업인 감귤, 관광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제주도 발전에 큰 기여가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개발참여가 미흡하고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소외감과 거부감 표출이 제기됨으로 청부주도의 개발 방식으로 지향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 측은 특별법에 따라 1992년 7월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동의와 중앙승인 절차 등을 거쳐 1994년 6월에 계획을 결정하고 공고하게 된다.<sup>1</sup>

계획 기간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으로 그동안 1차산업 및 관광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의 개편, 조성과 자연경관 및 환경보전 체계의 확립, 사회간접자본 및 생활 편의 시설의 확충을 골자로 한 발전전략을 이루게 된다.

계획의 주요 지표와 투자계획 등을 살펴보면 3차 산업의 비중을 점차 늘여

---

<sup>1</sup>제주도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시행안내집 (제주도: 제주도 인쇄공업협동조합, 1992), 11-22.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며 동시에 도로 포장률, 주택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등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도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며, 각 사업에의 투자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제주도 발전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제주도의 향후 계획이라 할 수 있겠다.

표 1.--계획의 주요 지표<sup>1</sup>

구 분	단 위	1990	1997	2001
인 구	천명	515	557	578
지역총생산	억원	16,637	39,810	66,560
○1차 산업	%	36.1	27.6	23.3
○2차 산업	%	5.5	5.0	4.7
○3차 산업	%	58.4	67.4	72.0
1 인당 소득	천원	3,274	7,147	11,516
관 광 객	천명	2,992	4,350	5,300
도로포장률	%	63.6	79	91
주택보급률	%	78.3	86.5	93

표 2.--투자계획<sup>2</sup>

사 업 별	총 계 (1994~1997)	전 반 기 (1994~1997)	후 반 기 (1998~2001)
지역사업진흥	47,268	16,786	30,482
농축수산업	25,862	10,991	14,871
관광개발	21,406	5,795	15,611
기반시설확충	16,883	9,252	7,631
생활권정비	14,261	6,514	7,747
지역환경보전	3,732	1,714	2,018
계	82,144(100%)	34,226(42%)	47,878

<sup>1</sup>상계서, 11-22.

<sup>2</sup>상계서, 11-22.

## B. 주요 계획 내용

### 1.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의 진흥

기술 및 자본 집약형 첨단 농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생산 기반의 확충 및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2. 사회 간접자본 확충

공항시설 확충 및 국내, 외 항로를 증설하고 항만별 전담기능 부여 및 개발방향 설정하고 도로시설을 확충, 연결성을 강화시키며 종합적인 정보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3.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며 보건, 사회,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표 3.--제주도 각 지역의 인구 현황<sup>1</sup>

시 군 (읍 면)	세 대 (가 구)	인 구 (명)		
		계	남	여
제 주 도	157,314	519,492	256,492	262,902
제주 시	78,489	255,602	126,026	129,576
서귀포시	25,555	85,489	42,386	43,103
북제주군	30,091	98,409	48,574	49,835
남제주군	23,179	79,894	39,505	40,388
대정읍	5,985	20,058	9,866	10,192
남원읍	5,734	21,024	10,470	10,554
성산읍	4,950	16,592	8,210	8,382
안덕면	3,284	11,066	5,438	5,628
표선면	3,226	11,154	5,522	5,632

<sup>1</sup>상계서.

#### 4. 교육, 문화 및 체육의 진흥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향토문화의 독창성과 주체성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향토 문화의 발굴과 진흥에 역점을 두어 시행하며, 1998년도의 전국체전을 대비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선수의 양성을 통한 진흥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표. 4.--국토 이용 계획 변경 예측<sup>1</sup>

구 분 (단위 : Km <sup>2</sup> )	1 9 9 2	2 0 0 1	증 감
계	182,621	182,785	1,64
도 시 지 역	37,425	38,934	△15.09
준 도 시 지 역	4,633	5,075	△4.42
농 립 지 역	16,290	16,290	-
준 농 립 지 역	105,239	103,330	△19.09
자연환경보전지역	19,034	19,156	△1.22

#### 5. 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도모하고 수려한 경관지, 생태계의 표본지역등은 보전하고 배후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절대보전 지역은 한라산, 해안변등 63개 지역으로 252Km<sup>2</sup>, 상대보전지역은 오름, 주요도로변등 257Km<sup>2</sup>이다.

#### 6.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원이 체계적, 종합적 관리가 그 목적이다. 제주지역의 환경기준 별도 설정 및 준수를 통하여 강력히 통제하고 대규모 배출시설 및 개발사업의 입지 제한과 사전 환경평가를 실시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

<sup>1</sup>상계서, 25.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 7. 수자원개발 및 보전

수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광역상수도 계획을 설정하고 시행한다.

## 8. 관광개발

관광산업의 국, 내외 경쟁력 제고 및 국제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한다.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활동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내, 외국인을 끌어들인다. 현재 3개의 관광단지의 10개 지구의관광지구가 있다.

## 제 4 장

### 제주도 내 재림교회의 역사

한국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1900년에 기독교 신자가 21,136명이던 것이 오늘날에는 1992년을 기준으로 12,652,513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물론 거기에는 빠른 인구 증가와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 경제 개발 등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회 개척에 관한 신자들이 열망과 목회자의 열정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1</sup>

미국의 교회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10대교회의 특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수의 공통점을 또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10대 교회 중 6개는 성서침례회(The Baptist Bible Fellowship, Springfield, Missouri)산하에 소속되어 있고 남침례회 교단은 1개 뿐이다. 더욱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랜마크 침례 교회 담임목사이며 현재성서 침례회 부총회장인 존 롤링즈 박사(Dr. John Rawlings)는 향후 10년내에는 주일학교 평균인원수가 3,000명을 초과하는 교회가 25~50개로 이는 모두 성서 침례회에서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sup>2</sup> 미국의 성서 침례회 역시 한국에서 발전기 때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들 역시 신자들의 교회 개척에 관한 신

---

<sup>1</sup>이상락 목사 강연, “21세기 개척 목회 전략론,” 1996년 5월 27일.

<sup>2</sup>상게서. 현재 평균 3,000명을 초과하는 교회는 7개에 불과한데 이들 중 5개는 성서침례회 소속이다.

자들의 열망과 목회자의 열정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한국교회, 특히 제주도내의 교회들은 어떠한 인물들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여건을 가지고 생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각 교회의 발달과정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A. 모슬포 교회

모슬포 교회의 전신은 사계리 교회이다. 사계리는 모슬포읍 관내에 있는 마을의 지명이다. 사계리 제주도에서의 최초의 교회로서, 또한 호남합회에서의 최초의 교회로 설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그 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영린 목사의 “한국 재림 교회 연구”와 오만규 교수의 “재림교회사”로 이는 전 한국의 재림교회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다.

1914년 초, 문서 전도자 김종원<sup>1</sup>씨가 제주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던 중 술에 취한 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다. 그들은 노상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대화<sup>2</sup>로 인한 교회의 태동이 시작되어진다.

<sup>1</sup>한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20일; 김종원씨가 한효선씨에게 복음을 전하므로 장로교에서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 이단이라고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한 채 개종을 하자 장로교의 목사와 교인들에게 몰매를 맞았다 한다.

<sup>2</sup>이영린, 한국재림교회사 (서울: 시조사, 1965), 255: “1914년초 문서전도자 김종원씨가 제주도에 건너가 문서 전도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한(사업하다가 불이나서 화감에 술을 마심) 어떤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그가 메고 가던 책상자를 툇치며 이거 뭐야 하고 묻기에, 복음이요 한 즉, 복음이 뭐요?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이요. 믿으면 복받아? 이러한 우스운 회화가 교환된 후, 그 술주정꾼은 김종원씨가 가지고 간 책들을 몽당 샀다. 술에서 깨어나 보니 웬 상자가 머리맡에 있어서 열어보니 무슨 책이 가득이나 들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책을 읽어보기 시작하니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김종원씨를 소개하여 그들도 믿게 하였다. 바로 그 술주정꾼이 한효선씨다. 이들이 제주도 복음의 최초의 기수들이다. 그들은 1914년 북제주 신창리에 작은 집회소를 열었다. 1915년 2월말 11명이 전지열 목사의 주례로 모슬포에서 침례를 받으니 담너머로 재림기별을 던져 넣어 이를 주어 본 한문선생 김동대씨가 세천사의 기별

이러한 단순한 대화 후에 한효선<sup>1</sup> 씨는 곧바로 북제주군 신창리에서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다<sup>2</sup>. 한효선씨를 중심으로 정식 사역자 없이 친한 친구와 동네사람들을 모아놓고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토속신앙이 특히 강했던 바다 사람들이 미신적 신앙의 기질은 그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다. 주로 뱀이나 바다신을 믿어오던 그들에게 교회라는 새로운 신앙은 그들의 새로운 신앙 유지에 큰 방해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결국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남제주군 사계리로 이주하여 삼방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어려운 가운데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던 그들에게 하나의 희소식이 들렸다. 바로 한효선의 친구인 윤영술씨가 그의 집 앞뜰에 교회를 지어 대회에 기증하게 되었고 교회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sup>3</sup>. 윤영술은 후에 신학 공부를 하여 한국의 여러 곳에서 전도를 하는 사역자가 된다<sup>4</sup>.

미군 본부에서는 1915년 9월, 정기창씨와 전용렬씨<sup>5</sup>를 파견하여 제주도 사업

---

을 받게 되었다. 한효선씨는 계속 문서전도일을 하며 호남 충청 지방에 복음을 전한 복음전도의 역군이였다.”

<sup>1</sup>한효선씨 외손녀(동중한합회 민영기 목사 사모), 개인면담; 전형적인 학자 타입이었던 그는 김종원의 책을 그 자리에서 모두 구입하여 며칠동안 한번에 예언의 신을 다 읽고 난 후 개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효선씨는 그 후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집회를 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외국의 선교사를 맞는 것 이상으로 크게 영접하여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큰 집회를 가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도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던 중 당시로서도 출중했던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생계문제가 대두되면서 말년에는 다시 한의원을 개업해 생계를 꾸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부분을 한효선의 딸은 평생의 한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sup>2</sup>강혜령 집사, 개인 면담, 1996년 3월 8일.

<sup>3</sup>교회지남, 1918년 9월, 3; 사계리 윤영술씨의 통신: 교회는 8월 7일부터 두주일동안 정기창씨와 함께 부근 동리를 방문하였는데 특별히 감사할 것은 두 형제는 벌써 안식일마다 출석하였고 다른 몇 분도 오는 안식일에 참여하기도 약속하였으니 이곳을 위하여 기도하심을 바라나이다.

<sup>4</sup>교회지남, 1927년 3월, 32; 금번 졸업할 신학생--중략 --남선미선 윤영술.

을 도와주게 하였다. 그들의 힘을 입어 곧이어 애월리와 제주읍 일도리에 집회소를 열게 된다<sup>1</sup>.

윤영술씨가 자신의 집 앞뜰에 교회<sup>2</sup>를 지은 해인 1915년 2월 말경 전시열 목사<sup>3</sup>의 침례로 11명이 침례를 받고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어진 최초의 안식일 학교가 탄생하게 되었다<sup>4</sup>.

1919년,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주도내에서 여러 전도 집회를 가졌던 한효선은 문서전도를 하던 중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아 부인<sup>5</sup>과 함께 중국과 강화

---

<sup>5</sup>교회지남, 1918년 4월, 14; 정문국 목사의 통신을 접한즉 지나간 3월 18일에 일도리 예배소에 가서 열흘동안 전도회를 열었는데 정기창씨와 전용열 씨 부부와 그의 신자 89명으로 합심하여 낮에는 세시간씩 성경을 공부하고 밤에는 특별 전도회를 한 결과로 새로 믿는 사람 10여명을 얻었고 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임의 믿는 자 중에 침례를 받은 자도 있고 혼례를 이룬 자도 있으며 전 23일 안식일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함였으므로 많은 복을 받았더라.

<sup>1</sup>이영린, 한국재림교회연구 (서울: 선명문화사, 1968), 19.

<sup>2</sup>이 교회가 바로 모슬포 교회의 전신이다.

<sup>3</sup>김재신, 삼육대학교 90년사 (서울: 삼육대학교, 1999); 본명 C. L. Butterfield로서 초대 한국교회 감독과 조선합회 초대 합회장, 그리고 의명학교 초대 이사장을 지냈고 초기 개척 선교사업에 크게 공헌하다 1922년, 미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sup>4</sup>한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20일; 한효선씨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임창일, 김윤성 등이고 임창일의 외손 민영기 목사(동중한 합회 분당교회 담임목사)가 한효선의 외손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에 거주할 당시 김윤성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기도 하였다.

<sup>5</sup>한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20일; 한효선의 부인은 제주 고씨 성을 가진 분으로 그 아버지 고천부는 19세에 진사에 올라 벼슬을 하기도 했던 전형적인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또한 전형적인 학자 타입의 모양새를 갖춘 한효선과 결혼하여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개종을 하게 되자 이단이라 생각하여 꾸준히 장로교회에서 사랑으로 봉사하던 중, 남편이 계속 장로교를 고집하면 이혼이라도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알게된 후 개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딸 한명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남편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도 생활을 하며 힘이 들었지만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남편을 도왔고 교회를 보필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도에서 복음 전파 활동을 하게 된다. 그는 이후 향년 62세가 되기까지 여러 지역<sup>1</sup>에서 여러 고초를 겪으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활동을 하였다<sup>2</sup>.

그러나 이 교회는 1950년까지 존재하였으나 6.25 동란 등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대회의 손길마저 끊기게 되자 전쟁전후를 즈음하여 그 집에 살고 있던 운영술씨의 동서가 대회로부터 그 땅을 다시 사들이게 되는데 약 100여 평이었던 땅을 대회의 목사 등 약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매 계약을 하였다고 한다<sup>3</sup>.

한편 모슬포 교회가 운영술씨의 땅 기증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희수<sup>4</sup>씨는 사계리 교회 사택<sup>5</sup>에 입주하여 살며 교회를 보살피게 되는데

<sup>1</sup>한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20일; 1915년 침례를 받은 후 1921년에는 자신의 고향인 진도로 가서 인지에서 김철문에게 시조를 권하고 진리를 전한다. 진도의 소포교회는 한효선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sup>2</sup>한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20일; 1883년 음력 4월 8일 전남 진도군 지산면 해창리에서 태어난 그는 1895년 상경하여 당대에 유명하던 한의사에게 사사를 받고 제주도에서 개업을 하게 된다. 풍수지리와 역학에 능했던 그는 개종 후 선교사들에 의하여 ‘무당이 개종을 하게 되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1915년에 침례를 받은 한효선은 제주도에서 각종 전도활동을 벌이던 중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고 서울 매서원에서 문서전도 감독직을 맡기도 하였다. 1919년 전도사로써 중국과 강화도에서 복음 활동을 했고 특히 원산의 신고산에서, 1930년에는 충북 제천읍 청풍면에서, 33년에는 충남 청양과 공주, 36년 나주에서 교회를 개척 또는 지도하였다. 1943년 생활고에 지친 그는 다시 한의사를 시작하였고 조국광복이 있기 얼마전인 1944년 음력 12월 3일에 별세하였다. 슬하에는 3남 3녀를 두었다.

<sup>3</sup>이창호, 개인 면담, 1996년 4월 27일; 이창호은 현재의 땅 주인이기도 하고 이희수의 막내 사위이기도 하다.

<sup>4</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이희수씨의 신앙배경은 감리교에 있다. 1910년경 그가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서울에 가면 감리교회에서 세운 병원이 있으니 이곳에서 감리교인이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일단 교회에 들어가면서 목사로부터 하라”고 충고를 해줘 감리교를 찾았으나 당시에는 제주도 내에 감리교회는 없고 장로교회가 있어서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안식일 교회에서 대전도회가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공중 대표 기도를 하게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이희수씨는 자신이 다니던 장로교회에서 제명을 당하게 되어 재림교회로 입교하게 된다(이희수씨의 외손녀의 증언, 1999년 12월 6일).

이는 모슬포 교회와는 별도로 그 동안도 사계리 교회는 계속 존재하여 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sup>1</sup>. 이희수씨는 자녀들<sup>2</sup>을 한림에 있게 하고 부인과 함께 사계리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게 되는데, 해방 이후에는 제주시교회와 사계리를 넘나들며 좀 더 폭 넓은 봉사를 하게 된다.

그러던 중 6.25 동란 직후 1954년 경, 사계리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당시 제주시 교회 담임목사로 봉사하던 박찬문 목사<sup>3</sup>가 이 교회를 팔아<sup>4</sup> 그 자금을 대회로 보내게되었기 때문이었다<sup>5</sup>. 이로써 사계리 교회는 자취를 감추게 되고 이제는 모슬포 교회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1950년 11월, 육군은 육군 제 1훈련소를 남제주군 모슬포에 창설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당시 의무관이었던 육군 제1훈련소 육군 대위 김찬억씨<sup>6</sup>를 중심으로

<sup>5</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양명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사계리 교회는 기와가 없어진 회관과 같은 약 100여평의 큰 건물이었고 방 2과 부엌이 딸린 사택, 그리고 마루 바닥으로 된 넓은 교회 예배당이 있었다고 한다.

<sup>1</sup>교회지남, 1934년, 2월, 29; 17일에 모슬포 리희수씨택을 방문하여 많은 기쁨을 얻고 30일에 리희수씨와 동반하여 사계리를 다녀서 감산리에 대한 문제로 간단히 설교하여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다시 모슬포로 돌아왔다가 12월 1일에 사계리로 가서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중 많은 자비를 보았습니다.

<sup>2</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이희수씨는 슬하에 3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점순, 남복순, 이동순이다.

<sup>3</sup>현재 캐나다 거주.

<sup>4</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당시 제주시 교회 담임 박찬문 목사가 주도적 입장에서 계약을 하였고 계약이 거의 성사될 때 이희수씨의 딸 이점순씨가 기왕이면 타지인 보다는 제주도 사람에게 파는게 낫지 않겠냐는 주장에 막내딸 이동순이 사계리 교회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sup>5</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당시 교회가 매각된 후 자금전체가 대회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실은 공식적으로 대회와 당시 매각 책임자였던 박찬문 목사만이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sup>6</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10일; 당시의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

4~5인의 교인이 상모리 4239번지 이옥녀씨 집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많은 군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됨으로 교회는 큰 부흥기를 맞게 되고 드디어 1952년 초대 사역자 김병운 전도사가 이 곳으로 부임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때 김병운 목사는 집회장소의 협소함을 깨닫고 하모리 865-2번지의 문원민의 밭을 대여<sup>1</sup>하여 천막 교회를 세워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1953년, 김병운 목사는 제주시로 전근하고, 제 2대 사역자 황학수 전도사가 부임, 10월에 합회로부터 교회건축비 4,700원을 지원 받아 목조 18평 교회당을 건축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54년 1월에는 연합회로부터 미화 1,000달러를 보조받아 교회를 준공하고, 또 사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5월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이 해 12월의 안교생 수는 85명을 기록하고 있다.<sup>2</sup>

1965년 3월 8일 제 3대 사역자 오충의 전도사가 부임을 하게 되는데, 모슬포 교회의 최대 부흥기는 바로 이 시기라 할 수 있겠다. 그는 뛰어난 설교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사역자로 모슬포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인식되어져 있다.

마을에 영어 교실을 열어 많은 청소년층과 청년층을 교회로 흡수하였으며, 장년층을 위해서는 헌신적 설교로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었다는 것이 현 교회 교인들의 진술이다.

1965년 5월 2일, 예배소는 모슬포 교회로 승격되어 조직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연합회의 MV부장 지고석 선교사가족과 호남대회장 이응준 목사와 은광현 목사,

---

나 김찬억 대위는 안식일이면 교회에 나와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고,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바가 없고 다만 그가 임기를 마쳐 육지로 돌아갈 때 그 서운함을 달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모슬포 교회에서는 송별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sup>1</sup>한국연합회 법인실; 하모리 865-2는 1956년 2월 15일부로 매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sup>2</sup>호남합회, 제 17회 총회 보고서, 131.

김춘섭 목사, 손은수 선생, 제주 지구장 신갑송 목사 등이 참가하여 3일간 큰 잔치를 베풀어 인근 주민들에게 대인기를 끌게 되었다.<sup>1</sup>

1966년 제 4대 사역자로 부임한 강석배 전도사 사역기간에는 삼육대학교 교육과 학생 주최로 대 전도회를 열어 그 부흥기를 연속시키고 끝이어 교회의 수도 시설을 확충시키는 등 내부 수리에도 역점을 두어 마을사람들을 교회로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이루게 되었다.

1968년은 모슬포 교회에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하던 한 해였다.

먼저 호남 대회와 중서대회가 합하여 서남대회로 개편이 되고 대회장 및 여러 합회 보직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달 4월 23일, 호남대회는 강석배 전도사를 성산포 교회로 발령<sup>2</sup>을 내고 그 이후로는 사역자를 교회에 보내지 않았다<sup>3</sup>. 사역자의 공백이 교인들에게 가져다 준 부담감은 대단한 것이었다. 같은 해 5월 초순, 서울 위생병원 알렌 치과 의사의 10여명과 부산 위생병원 장 외 3명이 모슬포 교회에서 무료치료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기록되어지지는 않았다.

1993년 4월에는 교인들이 1,200만원을 헌금하여 교회 내부를 대폭 수리를 했고 사택을 수리하고 증축을 하였고<sup>4</sup>, 1994년에는 합회로부터 100만원의 보조금<sup>5</sup>을 받아 교회를 수리하여 발전을 지향해보기도 하였지만 그 후 여러 예배소 소장직

<sup>1</sup>상계서, 131. 당시 교인으로는 장로 강신배(강혜령 소장 부친), 집사 이현직(이신규 목사 부친), 김용화, 이복순, 강채욱 이었다.

<sup>2</sup>대회 개편 작업이 있기 전 이미 인사 결의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sup>3</sup>상계서 132에 의하면 역대 목회자는 김병윤(52), 황학수(53), 오충의(65), 강석배(66)이었다.

<sup>4</sup>상계서, 131-132.

<sup>5</sup>호행, 94-118.

이 바뀌며 여러 차례 가졌던 부흥운동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발전의 기미는 없었다

1997년 교회는 합회로부터 모슬포 교회 청년관 신축을 위하여 4백만원을 보조받아 신축하였고,<sup>1</sup> 교회조직을 하게 된다.<sup>2</sup>

현재는 약 10여명의 교인<sup>3</sup>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있다.<sup>4</sup>

## B. 제주 중앙 교회

합회에 보고된 중앙교회의 연혁은 1906년 왕거린 선교사 내외가 본도에 도착하여 최초의 선교활동의 시작되어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1908년에는 문서 전도원 김종원씨가 제주시의 칠성로에 있는 한 민가를 빌려 집회소를 마련함으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어진다<sup>5</sup>.

그러나 왕거린 선교사가 1909년에 내한하였고 그 이후 왕거린 선교사의 부인 왕대아<sup>6</sup>가 1919년 조선합회 창립총회에서 안식일학교부장을 역임한 사실<sup>7</sup>을 감안

---

<sup>1</sup>호행, 97-135.

<sup>2</sup>호행, 97-159; 교인수 73명, 안교생수 49명을 기록하고 있고 96년 안교헌금은 1,024,500원이고 십일금은 12,619,250원이다.

<sup>3</sup>1994년에 합회에 보고된 내용은 안교생이 96명, 녹명책에 기록된 침례 교인은 66명이나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up>4</sup>예배소 소장을 맡았던 사람들은 김진규, 정춘홍, 황희영, 김기만, 임영두, 강신배, 엄기남, 강혜령 등이다.

<sup>5</sup>호남합회, 제 17차 총회 보고서, 129.

<sup>6</sup>김재신, 삼육대학교 90년사, 131; 본명은 Theodora Wangerin 으로서 1908년부터는 한국안식일학교 사업과 출판편집사업을 하였고 1919년 초대 조선합회의 안식일학교부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sup>7</sup>상계서.

하고, 또 왕거린 선교사가 남선 대회장<sup>1</sup>을 역임하던 시기에 제주도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 것을 감안하면 제주시 교회의 역사는 최소한 1920년대에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25년, 현재 국민은행 제주지점의 자리가 되어 있는 제주시 동문로에 100평의 부지를 매입<sup>2</sup>하고 교회를 마련하게 되는데 1960년 7월 칼멘 태풍으로 교회가 파괴하여 어렵게 되자 한국 연합회와 호남대회의 도움으로 석층 콘크리트로 건평 26평에 종각 2층으로 된 교회당을 건립하고 10.5평을 지어 예배를 재개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 교회는 대회에서 파견한 박 전도사<sup>4</sup>에 의하여 당시 시세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헐값에 팔리게 된다<sup>5</sup>. 그러나 사계리 교회의 이희수씨가 다시 복원을 하

---

<sup>1</sup>상계서, 131; 한국 교회는 1919년 3.1운동 직후 5월 순안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조선합회(Chosen Union Mission)을 조직하고 전국을 3개 구역으로 나누는데 서북지방을 총괄하며 본부를 순안에 두는 서선대회와 중부와 동북부를 관할하며 본부를 서울에 두는 중선 미션, 그리고 영남과 호남을 관할하며 그 본부를 경산에 두는 남선미션으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게 된다.

<sup>2</sup>이 자리는 신제주가 신도시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켜온 최근까지 제주시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고 특히 동문로타리, 동문 시장은 제주시민의 생활의 중심부로 제주시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다.

<sup>3</sup>제주중앙교회 연혁; 이 자리는 현재 동문로터리 조흥 차부 옆 건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연합회장은 태비수 목사, 재무부장은 박창욱 장로, 목회 부장은 문선일 목사였고 호남 대회장은 신중균 목사, 회계는 김춘섭 장로였다.

<sup>4</sup>박전도사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고, 또 당시 지방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부실한 교회를 찾아서 땅과 건물을 정리하는 일이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대회에서 파견한 박 전도사가 교회를 처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sup>5</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사건은 해방 직후의 일로서 당시 사계리 교회에서 봉사하던 이희수씨가 제주시 교회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시 교회로 가 보았는데,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보았는데 마침 친했던 친구라 교회를 되찾을 생각으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데 다짜고짜로 주먹으로 치며 내쫓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교회의 명의로 다시 복원을 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도지사 역시 박 전도사가 동문로에서 장을 이루고 있던 지계꾼, 마차꾼, 장사꾼 등에게 헐값에 팔고 도주한

고 제주시교회로 이사하여 교회를 돌봄<sup>1</sup>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sup>2</sup>, 이 때가 6.25 동란이 터질 그 무렵이었다<sup>3</sup>.

그러나 1.4 후퇴로 상당한 피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그 피난민들이 제주시 교회로 밀려들게 되자 다시 사계리로 돌아와 약 2년 후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하직하게 된다.<sup>4</sup>

1968년 4월에는 정형모 목사가 부임하여 제주시 이도 1동 1549-8번지에 113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교회를 신축하고 같은 해 원동 지회장 엘드리지 목사와 연합회 월콕스 목사, 그리고 호남 합회 서기 임병의 목사, 호남 대회장 고문경 목사 등을 참석한 가운데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다.<sup>5</sup>

사실을 알고 이들을 협박 혹은 약점을 이용하여 교회의 명의를 가로챈 것으로 보여진다고 증언자는 진술한다.

<sup>1</sup>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51-687; 제주성 내 예배당 회수비: 제주성 내 이도리에 있는 예배당은 제2차대전 이래 타인의 손에 넘어갔던 것을 약 2년전에 이회수씨가 이를 회수하고 이래 예배당 부속 주택에 거하며 예배당을 보호해왔는 바 그간 비용으로 금 십오만원을 재건비중에서 지불하는 동시에 주택을 명도케 하기로 결의함.

<sup>2</sup>상계서, 51-688; 제주성 내 이도리에 있는 예배당을 가급적 속히 수리하기로 결의하다.

<sup>3</sup>이 사건은 교회가 해산될 때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정식 사역자에 의하여 발생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up>4</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당시 장례는 모슬포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황학수 목사의 집례로 집행되었다.

<sup>5</sup>여기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시세차익에 관한 것으로 당시 그 당시 정형모 목사는 동문로의 부지를 팔고 교회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남기게 되었다. 동문로의 땅이 매우 고가였고 100평 면적에 2층이었던 교회 건물을 팔고 저가의 땅 100평을 사고 교회 건물을 2층으로 지었지만 시세가 약 5배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정형모 목사가 교회 건축 후 남는 차액을 호남합회로 보내었고 자신의 고향 교회인 여수 교회에 적잖은 도움을 준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당시 교인들이 새로운 교회 건축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가 되기도 할 것이다.

1977년 7월에는 삼육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이 김명호 목사를 강사로 하여 대전도회를 열어 침례자 7명과 함께 많은 구도자를 얻게 되었다.

1991년 5월 중앙 교회운영위원회는 교회 개척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 개척을 결의하고 교회 개척을 위해 모금을 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해 약 6,000여 만원이 현금되었고, 동년 10월에는 제주시 연동 274-20번지에 35평을 전세 계약하여 신 제주 연동 274-20 번지에 35평을 전세 계약하여 신제주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sup>1</sup>

1994년 8월 29일 교회 위원회에서는 제주시 이도 1동에 위치한 제주시 중앙 교회가 전도를 하기에는 지리적 난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회를 매각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로 결의를 한다. 그리하여 현 교회의 위치로 1996년 1월 1일부터 기해 이전을 하게 되었다.

### C. 성산포 교회

1951년 1월 15일, 1.4 후퇴를 개기로 부산에서의 피난민 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교단의 모든 기관을 성산포로 옮기기로 결정하여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인들은 한국 연합회장 대리 류제한 박사의 알선으로 준비된 LST 선박에 탑승하여 제주도로 피난을 오게 된다.<sup>2</sup>

<sup>1</sup>이 때의 담임 목사는 김치호 목사였다.

<sup>2</sup>교회지남, 1951년 12월, 71; 1950년 6월 25일 새벽, 채플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던 중 전쟁소식을 접하게 된다. 당시 병원장이던 류제한 박사는 대총회 참석차 미국에 가 있었고 다른 미국인들은 이미 밤사이에 피난을 가서 병원 내에는 미처 전쟁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던 한국인 직원들만 있었다. 중랑교가 폭파되기 전에는 국군의 환자들이, 폭파 후에는 인민군들이 병원을 점거했지만 기회를 틈타서 모두 탈출할 수 있었다. 9.28 서울 수복 후, 10월 27일에는 류박사 내외가 입국하여 병원을 다시 개원하였고 정상대로 다시 운영을 하기 시작하던 중 1.4 후퇴로 장비와 의약품 등을 철도 화물차와 트럭에 실어 부산까지 운송하였고 이윽고 제주도까지 옮기게 된다.

본 교회 교인 900여명, 타 교회 교인 6,000여명이 부산항에서 오후 9시경에 출발하여 거제도 앞 바다에서 해군 사령부의 지시를 기다리며 약 4시간 가량 정박한 후 다음 날인 51년 1월 16일 저녁에 제주도를 향해 다시 출발하여 17일 아침 11시경에 제주 산지 항 내 축항에 도착하였다.

제주읍에서 다시 도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제주읍에 내리지 못하고 전설로 유명한 삼성혈을 바라보며 서쪽으로 향진한 후 18일 아침 화순포구에 정박하였는데 이 때 대부분의 개신 종교 단체와 일반 피난민들은 하선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림교인 902명은 성산포에 정착하기로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1951년 1월 18일 오후 5시경에 화순포구를 떠나 밤 9시경 제주도 최 동쪽의 성산포에 도착하게 되었다.

비행기로 먼저 와 기다리던 한국연합회장 배의덕 목사와 회계 마일서 선생의 위로를 들은 후 약 반수는 성산 서 초등학교 교실에 나머지는 성산 수산 고등학교 교실에 짐을 풀고 정착하게 된다.

1951년 1월 20일 안식일은 정착 후 첫 안식일로 기록되어진다. 성산 서 초등학교<sup>1</sup>에서는 회기동 교회 안식일 학교장인 김이열씨의 사회로 약 400여명이 출석한 가운데 안식일 학교가 진행되었고, 안식일예배는 회기동 교회 신임 장로인 유영순씨의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란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성산 수산 고등학교에서는 김명길 목사<sup>2</sup>의 요한복음 10장 11절 ~ 13절

<sup>1</sup>당시 학교의 이름은 성산 서 국민학교, 현재는 동남초등학교로 되어있다.

<sup>2</sup>교회지남, 1951년 12월, 71; “한국 동란 중에 당한 나의 고난과 중한 교회 실정”: 수백명이 기차로 부산에 오게 된 후 다시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제주도에 오게 될 때에는 각처에서 모인 교인들 천여명이 배를 타고 제주도에 1951년 1월 19일에 도착 되었습니다. 제주도 성산포라는 곳에 교회 본부를 임시로 두게 되고 교역자와 교인들이 본부 근방 네 곳에 나누혀 거하며 안식일 예배와 기타 예배도 네 곳에서 보는데 혹은 휴업중의 공장 혹은 학교 혹은 공회당 등을 빌리어 보게 되었으며 3주일 이상 전도회와 수양회도 하였으며 섬 주변 각지 곧 함덕, 광지, 한림, 모슬포 등지에서도 전도회를 열고 교역자와 평신도가 연합하여 활동한 결과 몇 사람씩 구도자를 얻게 되었으며 함덕이라는 곳에는 약 30명이 모여 예배

의 말씀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

두 곳 학교에 일시적으로 수용되어졌던 일행은 성산 경찰서와 면 당국의 호의로 1월 22일까지 모두 부락의 민가에 기류할 수 있게 되었고 1월 26일에는 류제한 박사도 합류함으로 성산 서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서울위생병원을 개원하게 된다<sup>1</sup>.

재림교회 신자들이 제주도 성산포에 들어온 이후 첫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그것은 전도부장 김명길 목사의 지휘 하에 각 부서를 정하여 대 전도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먼저 성산포의 통조림을 공장을 빌려 1951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양회로 모이고 밤 6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전도회로 모여 집회를 속해하게 되었다. 수양회 강사로는 김명길 목사, 박원심, 김봉덕, 조경철, 소용환, 김국연 및 유영순 제씨이고 저녁 전도회 강사는 오영섭, 조경철 목사였다. 전도 집회에 있어서 불신자들이 참석자가 많지 못했음은 지방민의 완고한 미신 사상에도 원인이 있었으나 또한 비상 계엄령 하에 있는 일반인의 인심이 활발하지 못함에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 6명의 구도자를 얻은 것은 귀한 일이었다<sup>2</sup>. 그리고 동시에 같은

---

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산포에서는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신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헌금한 결과 200만원을 건축자금으로 건게 되고 부산에서도 여러 피난 교우들과 본 지방 교인들이 헌금하여 200만원을 건어 400만원의 기금으로 지금 성전을 건축 중인데 물자의 구입은 물론 돈을 주고 사지만 필요되는 노력도 특별한 기술자를 얻는 이외에는 것의 다 신도들의 봉사 동원으로 재목을 운반한다든지 석재를 나른다든지 모래 운반 기타 각 방면으로 친히 돕고 있는데 이 봉사 동원에는 교역자, 일반 신도, 중학생, 소학생, 부인 등 모두 참가하고 있습니다.

<sup>1</sup>피난지에서서 개원된 위생병원의 환자는 하루 평균 100명에서 350명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약품은 UN에서 가져온 것으로 충당이 되고 부족분은 서울에서 가져온 것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특히 제주도의 전염병 환자가 많았는데, 천연두, 발진티푸스, 디프테리아, 적리, 홍역, 폐렴 등의 환자들을 각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한 것이 2,600여 회, 예방주사는 약 31,596명에게 주사되었다(그 후 피난 10주년 기념으로 2주일간 제주도 의료 봉사를 하기도 함).

날 성산읍 오조리에서는 김명길 목사<sup>1</sup>의 집례로 남녀 6명<sup>2</sup>에게 침례식을 거행하였다. 그 때 전도회를 위하여 통조림 공장을 빌려준 주인 부태운 씨는 전도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하여 교회의 예배 장소와 중, 소학교 교실로 사용할 것을 허락해 준 일은 피난 신자들의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었다<sup>3</sup>. 얼마 후에는 병원도 성산포 최북단의 사가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피난민들의 후생을 위해서는 피난민 대책 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초대 위원장은 오영섭, 2대 위원장은 이용준씨였고 사무실은 김길수 씨고 무료로 빌려준 항구 근처의 집으로 하였다<sup>4</sup>.

<sup>2</sup>교회지남, 1951년 12월, 93; 제주도 성산포 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이제명 목사의 내도를 기하여 남녀 32명에게 침례식을 거행하였으며 동 28일에는 고성, 신양리 두 곳 교회 연합으로 남녀 36명에게 침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sup>1</sup>김명길 목사는 교회가 해산된 후 개성에 있던 집 한 채를 정리하여 배낭을 등에 지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섰었고, 1945년에는 교회재건 받기 위원으로 1946년부터는 중한대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sup>2</sup>부복수, 홍은선, 정춘홍.

<sup>3</sup>교회지남, 1951년 12월, 78; 3월 11일에 성산포 통조림 공장 가교사에서 삼육 중학교와 삼육 초등학교는 개교가 되었는데 8월 8일에는 광영의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첫 경험으로 입영 출정한 군인 학생에게는 문교부의 지시를 따라 진급을 해당자에게 시키게 되었는데 졸업자 수와 진급자 수는 다음과 같다.

1. 3년 졸업자 28명 - 그중 군인 2명
2. 4년 졸업자 22명 - 그중 군인 16명
3. 6년 졸업자 9명 - 그중 군인 2명
4. 2학년 진급 23명
5. 3학년 진급 19명 - 그중 군인 2명
6. 6학년 진급 13명 - 그중 군인 7명

그리고 7월 22일에는 삼육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남녀 19명의 어린 학생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상과 같이 8월 9일에 삼학된 삼육중학교는 새로 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어 입학시험을 8월 16일에 성산포, 목포, 부산, 대구, 목호, 각지에서 동일시에 치르었으며 개학은 9월 2일에 -중략-

<sup>4</sup>교회지남, 1951년 12월, 93; 의용 선교부 주최로 8월 1일로 동 7일까지 성산포에서 적십자 구급 강습회를 열었는데 수강자 59명중에 강사증 받은 자가 9명, 일반증서 받은 자가 50명이라 하며 앞으로 통영과 대구에서도 개최하리라고 합니다.

1951년 2월 10일에 조직한 피난민 교회의 수석 장로는 유영순, 수석집사는 노원호 씨가 맡게 되었다. 그들은 성산포와 오조리, 고성리, 신양리 등지에서 산재하여 살던 교인들을 규합하고 독려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인심이 후하고 상냥한 제주도인들의 덕을 많이 보는 대신 예배보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 안식일에 예배를 보지 못하고 산이나 들에서 모여 예배를 들이는 일이 잦아져, 거기서 조그마한 예배당 한 채를 지을 것을 결의하고 명희조, 김진택, 이해서, 오석영, 박장순씨가 주축이 되어 28만원 가량의 현금을 모으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얼마 후 뜻 밖에 51만원이 모아지게 되자 더욱 어 용기를 얻은 그들은 아예 예배당을 크게 신축할 것을 구상하고 오영섭 선생을 회장으로 하는 예배당 건축 기성회를 조직 후 다음 날인 51년 1월 16일 저녁에 제주도를 향해 다시 출발하여 17일 아침 11시경에 제주 산지 항내 축항에 도착하였다<sup>1</sup>.

성산포 교회는 1951년 4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첫 삽을 뜬 후 같은 해 9월 22일에는 상냥식을 하고 12월 9일에는 낙성식을 하게됨으로 교회의 첫 모습이 갖추어 지게 된다.

<sup>1</sup>교회지남, 1951년 12월, 74; 피난중의 한국인, 오성룡: 바람 많고 돌 많기로 유명한 성산포였다. 유리창이 부서지고 다 떠러진 초등학교 마루바닥에서 몇 날을 공동수용 되었던 교인들이 차차 방을 얻어 들게 되자 17일에는 유의사도 오시고 성산 서초등학교 아늑한 곳에 서울위생병원이 개원이 되고 성산 통조림 공장을 빌어서 수양회와 전도회도 개최되어 비록 전란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피난민을 위협하는 듯한 겨울도 지나고 봄은 와서 여기저기 꽃송이들이 피는 5월 초순이었다. 진시한 한국연합회 평의원회가 성산포에서 개최되어 지금까지 피난민으로만 자인하고 있던 교인들이 정신에 일대 전환을 일으키어 제주도 전도 원동이 전개되었다. 제주읍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를 각 지방에 배치하고 제주도 30만 동포에게 진리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였다. 그리는 동안에 고성에는 사백여만원 예산으로 기념 예배당이 건축되게 되었으며 삼육 소, 중, 대학은 개학이 되어 학도들은 공부에 열심 하게 되었으며 청년선교회에서는 향상급 마크 수여식이 거행되었고 제주읍 방송국 「마이크」에서는 우리 찬양대의 방송도 있었다. 교회에서는 성산에서 두 번 오조리와 고성에서 각기 침례식이 있어 90여명이 새로 입교하였으니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된다는 뜻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1988년 성산포 교회는 교회를 이전하기 위하여 합회에 건의를 하였고 교회 및 사택 신축 승인을 하게 되어 총 105평의 교회를 6천만원의 교인 현금으로 신축을 하도록 하였고<sup>1</sup> 그 해 총회 안식일 현금 사용 목적 가운데 성산포 교회 건물을 “성산포 6.25 기념관”으로 남기기 위하여 현금할 것을 포함시키게 된다.<sup>2</sup>

그리고 성산포 교회의 신축을 위하여 100만원, 교회 사택 신축을 위하여 300만원, 총 400만원을 보조할 것을 결의한다.<sup>3</sup>

그런데 다음해인 1989년 현행 도시 계획상 철거가 불가피함으로 인하여 기념관 보존 결의<sup>4</sup>를 취소<sup>5</sup>하고 성산포 교회 구 대지를 현행가로 매도 처분하여 신축 중인 교회당 건축공사를 완료토록 결의하게 되고<sup>6</sup>, 1990년 구 대지를 56,670,000에 매도하게 된다.<sup>7</sup>

#### D. 한림 교회

송진옥 할머니가 한림으로 오기 전 이미 한림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sup>8</sup>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 송종옥 할머니

---

<sup>1</sup>호행, 88-83.

<sup>2</sup>호행, 88-157.

<sup>3</sup>호행, 88-84.

<sup>4</sup>호행, 88-83.

<sup>5</sup>호행, 89-82.

<sup>6</sup>호행, 89-83.

<sup>7</sup>호행, 90-32.

<sup>8</sup>교회지남, 1932년 6월, 32; 그 다음에는 한림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곳은 임착일씨 형님이 홀로 계셔서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날 밤에는 청년 5, 6명이 모여 예배를 보았는데 장차 희망이 보였습니다.

니가 포함되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안식일 할머니로 알려진 송진옥 할머니<sup>1</sup>가 한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제의 압박이 한층 고조되던 1920년에서 1930년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송진옥 할머니가 약 20세 정도 되었을 때 용수리 교회에서 전도회가 있었고 그 전도회를 통하여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sup>3</sup> 그녀는 그 후 신앙 문제로 이혼을 하고 한림으로 옮겨가 신앙생활을 홀로 하게 되는데 약 1930년대 일 것이다.<sup>4</sup> 그리고 한 가정이 한림으로 이사를 오면서 안식일 학교가 조직되어 한 때는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sup>5</sup>

그러던 중 신사참배문제로 교회가 해산 당하게 되고 송진옥 할머니는 감옥생활까지 하게 되는데, 당시 끝까지 남아 교인들과 고초를 함께 겪었던 목회자는 신종균 목사, 김명길 목사 등이다.<sup>6</sup>

---

<sup>1</sup>송진옥 할머니는 호남합회 복음의 선구자 한효선 씨의 부인의 이종사촌지간이다(한효선씨의 외손녀의 증언, 현 동중한합회 분당교회 담임목사 민영기의 사모). 그녀는 문서 전도인이었으며,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감옥생활을 하기까지 한 사람이다.

<sup>2</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송진옥 할머니는 1935년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져 나올 그 무렵에 한림에 들어가셨다고 한다.

<sup>3</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송진옥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계리와 용수리, 제주시, 한림, 광지 등 7교회가 생겨났다고 한다. 참고로 1919년 조선 교회 상황을 보면 전국 24개 교회에 1,021명의 교인이 있었고 총 78개의 안식일 학교가 운영되었으며, 전체 사역자 총수는 131명이었고 그 중 목사가 10명이었다(참조; 삼육대학교 90년사, 130).

<sup>4</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증언에 의하면 이혼을 하였는데 신앙을 지키는 문제로 인한 것이었고 한림으로 이사를 한때는 신사참배 문제가 막 대두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sup>5</sup>교회지남, 1935년, 4월, 30; 한림, 성내교인 리성춘 형님의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한 후에 그의 열심 노력으로 지난 10월에 안식일학교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큰 교회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sup>6</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당시 제주도내의 기독교회 담임 목회자

해방 후 이희수의 맏딸 이점순<sup>1</sup>씨가 식구들을 이끌고 한림에 정착하여 송진욱 할머니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고 제주 4.3 사건 때에는 송진욱 할머니의 집에 숨어서 함께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6.25 동란으로 인하여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많이 몰려오게 되는데 신태식 목사와 황학수 목사는 때를 맞추어 한림에서 대 전도회를 개최하여 약 50여명의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였다. 증언자 양명희씨도 자신의 신앙의 시작을 이때로 잡고 있는데 그 당시 약 15세의 나이였다고 한다.

1983년 6월 12일, 서귀포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박종칠 형제<sup>2</sup>가 무교 지역 개척을 목적으로 한림에 정착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한림읍 수원리 761-6에 있는 50여평의 2층 건물을 2,200만원에 임대하고 1993년 3월 21일에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청년 장년과 어린이가 21명이 현재는 약 1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녹명책에는 약 21명의 명단이 올라가 있다.

## E. 광지 교회

장정조<sup>3</sup> 할머니가 기별을 받아들인 후 북제주군 애월읍 광지리 자택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중 청년 몇을 인도하였으나<sup>4</sup> 장년 전도가 쉽지 않게 되자 들은 대부분이 교인들과 함께 남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sup>1</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17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하였다.

<sup>2</sup>박종칠의 부인은 홍춘자로 현재 재림연수원 원장으로 봉사하는 홍광의 목사의 누이이다.

<sup>3</sup>한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8일; 안식교 할머니라 불리우던 장정조 할머니는 한효선씨 부인의 이모의 딸로서 한효선씨가 전도사로 원산에 있는 신고산에 파견을 할 때 같이 따라나서기도 하였다.

<sup>4</sup>교회지남, 1935년 4월, 30; 애월리 예배소, 이곳은 신자들이 얼마동안 연약한

어린이 전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sup>1</sup>. 애월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계리 등의 큰 교회의 부흥 운동에 같이 참여하여 전도를 하였던 것 같다.<sup>2</sup> 1930년대까지 애월 교회는 몇몇 신자들에 의하여 계속 유지되어져 왔고 여러 곳을 방문하는 등 교회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sup>3</sup>

그 후 1976년, 오봉주 목사가 제주시 교회에 부임하면서 곽지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먼저 여기에는 장정조 할머니의 헌신으로 시작되었다. 장정조 할머니는 자신의 소유지를 교회에 헌납하게 되는데 교회 건축을 시도하다 보니 그 땅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 땅을 매도하고 새로운 땅을 기증 받아 부지를 마련<sup>4</sup>하고, 제주도 내의 여러 교회

---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의 도와주심과 김영태 형님의 노력을 유망한 청년들이 나아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며 침례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sup>1</sup>교회지남, 1924년 6월, 30; 이곳을 떠나서는 애월리 예배소로 가서 여러 형매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예배소에는 신자수가 많지 못하나 원래 믿는 분은 다 믿음에 신실하대 특별히 연금 드리는 일에 성실한 안숙씨와 호령자병이 류힘하는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은 한 부인과 꾀박을 많이 당한 송지록씨와 대정이란 곳에서 온 나이 많은 한 부인과 김운성씨의 부인과 그 외에 남자 몇몇 분이 있어 하나님을 신실히 경배합니다.

<sup>2</sup>교회지남, 1919년 3월, 15; 사계리 교회 소식, 저는 1월 29일에 이곳에 와서 애월리 형제와 이곳 형제가 연합하여 2월 6일까지 사경회를 열었는데 마지막 예배하는 밤에는 이곳 회당을 기와로 덮기 위하여 우선 100여 원의 연금을 규합하고 속히 역사에 착수하기로 작정하였나이다(정기창).

<sup>3</sup>교회지남, 1934년 2월, 29; 제주도의 소식, 배혜경, 11월 27일에 애월리 교회를 방문하는 중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안숙씨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장구한 시일을 지내시면서 불신자들의 꾀박과 자녀의 반대를 다 헤치고 오직 주의 사랑의 품안에 안기어서 진실한 신앙생애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력이 쇠진하여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월리 교회 형제들이 자주 방문하여 위로해 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출석은 못하나 교회를 위하여 항상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연금을 성심으로 계속하여 드립니다.

<sup>4</sup>정병철, 전화 통화, 1999년 12월, 8일; 땅의 기증자는 진승부 씨이고 현재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에서 헌금을 하고 또 취락지구 구조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정부의 용자<sup>1</sup>를 얻어 현재의 건물을 신축<sup>2</sup>하였다<sup>3</sup>.

장정조 할머니는 그 후 주안에서 잠들게 되었다. 현재, 안교생은 7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 F. 함덕 교회

처가가 제주도 함덕인 인천교회 김태원 장로 내외가 1947년 함덕으로 이사를 오면서 집회를 시작함으로써 첫 교회가 시작되어진다.

1950년에는 조천면 함덕리 1279-4에 있는 80여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1966년 7월 25일에 이르러 교회를 준공을 하게 되었으나 행정상의 착오로 대지는 바로 옆의 절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만 교회 소유로 되어 있어 수십 년 간 교회와 절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sup>4</sup>.

그러던 중, 미국으로 건너가 거주하던 90여세의 김태원 장로내외가 함덕 교회 땅을 매입하기로 했고 그 대금으로 함덕 교회는 또 다른 새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짓게 된다. 그리하여 1994년 봄에는 조천읍 함덕리 1593에 있는 부지 365평(70평-도로가 나서 빼고) 중 225평을 매입<sup>5</sup>하여 30평의 교회를 3,000 만원을

<sup>1</sup>오봉주 목사, 전화 통화, 1999년, 12월, 10일; 헌금에는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6.25 동안 당시 핀란민으로 제주도에서 생활을 했던 해외 교포들도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건축 자금 대부분은 정부의 용자로 이루어 졌고 그 용자금 역시 결국에는 호남합회에서 갚게 되었다고 한다.

<sup>2</sup>제주도 북제주군 광지리 1603-3번지.

<sup>3</sup>한국연합회 법인실; 북제주군 애월면 광지리 1603-3의 대지 112평과 건물 25평이 장정조에 의하여 1980년 7월 7일 수증된 것으로 되어있다.

<sup>4</sup>소병선, 전화 통화, 1999년 12월 5일; 절의 여러 스님들과 그 외 주변 인물들이 땅의 실질적 주인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주지 승의 완고한 이기심에 의하여 실질적인 법대로라면 그대로 절의 소유로 판명될 수밖에 없었다.

들여 신축하게 된다<sup>1</sup>.

1997년 교회는 합회로부터 5백만원을 대여하여 교회 사택 건축을 마감한다<sup>2</sup>. 현재는 안교생 30여명이 한 철 소장으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합덕교회 출신 목회자로는 강정수 목사<sup>3</sup>가 있다.

## G. 서귀포 교회

1962년 서울위생병원장 류재환 박사의 도움으로 서귀리 320-22번지에 약 387.5 평<sup>4</sup>의 땅과 5층 건물<sup>5</sup>을 매입<sup>6</sup>하게 된다<sup>7</sup>. 그러나 당시 정황이나 증언에 의

---

<sup>5</sup>소병선, 전화 통화, 1999년, 12월, 5일: 365평중 70평은 도로계획상 매입이 불가하여 70평을 제외하고 난 295평만을 매입하게 된다.

<sup>1</sup>1994년, 완고했던 이 절의 주지스님의 사(死) 후 새로운 주지스님이 오게 되고 그 스님이 땅 값으로 4000만원을 지불하게 되면서 분쟁은 끝을 맺게 된다. 교회는 그 대가로 교회를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한다. 그러나 합회로 보고된 합덕교회의 연혁의 내용과는 달리 교회를 지을 당시 합회에서 3000만원을 보조해주었고, 그 외 교인들의 헌신적인 헌금이 있었는데, 그 헌금의 총액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제 17회 호남합회 총회보고서 67p에 의하면 건축평수 30평에 건축비 총액 4천 7백만원이었던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교회의 총 소유금액의 7천만원 가량이 되는데 아직 합덕교회 측에서는 교인들의 헌금 상황과 건축 비용이 정리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후 교회는 이영호 소장의 명에서 한국연합회 법인으로 이전되는데 1999. 11. 20부로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사택은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에 완성되어졌다.

<sup>2</sup>호행, 97-64.

<sup>3</sup>현 동중한합회 마석교회 담임목사.

<sup>4</sup>류재환 박사가 증여한 땅은 먼저 총 387.5평 가운데 국가의 환지 정리 작업 기간 중 112평이 정리되고 100.1평은 교회 건축을 위해 매매가 되었고, 이후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추가로 30평을 매도하였다(참조; 한국연합회 법인실).

<sup>5</sup>한국연합회 법인실; 이 땅은 1963년 12월 23일부로 매입이 되었고 그중 국가의 환지 정리기간 중 112평이 정리가 되고 1975년 4월 8일부로 126.7평이 매각되어 그 금액으로 교회를 짓게되고 148.8평만이 남게 되었다.

<sup>6</sup>서귀포 교회가 호남합회에 보고한 교회 연혁.

하면 당시 5층 건물은 건축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고 넓지만 단층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sup>1</sup>.

1964년에는 호남대회의 무교군 개척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전도자금이 해외의 도움으로 지원이 되고<sup>2</sup>, 조철수 장로<sup>3</sup>가 전도인으로 정착을 하게 되며, 이후 채안기 장로<sup>4</sup>와 김수영 선생<sup>5</sup>으로 이어지는 봉사활동으로 기반을 잡아나 가게 된다.

1974년은 서귀포교회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2월에는 서귀 1리 266-2번지를 세 얻어 채안기 장로를 다시 불러 들였고<sup>6</sup> 8월에는 삼육대학교의 하기 봉사대원들<sup>7</sup>이 봉사를 하여 주었고,<sup>8</sup> 드디어 그 여세를 몰아 11월 25일에 성전 신축 공사<sup>9</sup>를 시작하게 되었다<sup>10</sup>.

---

<sup>7</sup>서귀포 교회는 1961년 8월 삼육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장수돈 교수와 신학생 김가일 대장이 약 10여명의 인원으로 서귀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약 1주간 펼쳐 집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분명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sup>1</sup>양명희, 개인 면담, 1999년 12월 6일.

<sup>2</sup>이 때의 호남 대회장은 이용준 목사이고 제주지구장은 신갑송 목사이다.

<sup>3</sup>전남 여수 출신으로 문서전도활동을 많이 하여 구도자를 많이 내었고, 자급사역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봉사하였다.

<sup>4</sup>현 교회 장로.

<sup>5</sup>장로교회에서 개종하여 재림신앙을 갖게 되었다.

<sup>6</sup>당시 호남 대회장은 임형창 목사이고 제주 지구장은 정형모 목사이다.

<sup>7</sup>강사는 유정식 목사 부부로서 약 11명의 대원들과 함께 낮에는 여성회관에서 요리 강좌를 하고 저녁에는 신앙 강좌를 열었다. 약 1주간 개최되었다.

<sup>8</sup>당시 호남 대회장은 임형창 목사이고 제주 지구장은 설춘섭 목사인데, 대지 276평중 126평을 370만원에 계약하고 호남 대회 신축 보조금 80여 만원을 지원 받아 채안기 장로의 감독 아래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sup>9</sup>한국연합회행정위원회사록, 75-34; 호남대회의 제안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

1975년 2월 25일,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만에 교회 28평, 사택 12평, 화장실 3평을 완공하여 3월 2일에는 교인 12명과 어린이 10명으로 입주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 후 10월 11일에는 헌당식<sup>1</sup>을 가지고 성장을 거듭하여 같은 해 12월에는 교인 18명과 어린이 9명으로 총 27명의 교인을 보유하게 된다.

1976년에는 채안기 장로가 떠나고 장석래<sup>2</sup> 장로가 사택으로 입주하게 하게 된다. 그리고 3월에는 황희영<sup>3</sup> 장로가 입주하여 12월까지 봉사를 한다. 7월에는 삼육대학교 하기 봉사대<sup>4</sup>가 봉사를 하는데, 10월 16일에는 교회 태동 15년만에 첫 수침자 7명<sup>5</sup>을 내게 되고 이어서 12월 30일에는 최초의 사역자 채의구 전도사가 부임하게 된다. 1977년 1월 1일부로 예배소로 승격을 하게 된 서귀포교회는 6월 30

---

군 서귀읍 서귀리 320-2 대지 275평중 100.1평을 매도하여 서귀포 교회당을 신축 하는데 전용토록 결의한 바(74-234) 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동공사를 마치려면 30평 가량 더 매도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승인함.

<sup>10</sup>한국연합회행정위원회의사록, 74-234; 호남대회의 제안에 따라 다음의 교회 건축을 승인함. 장소: 제주도 서귀포읍 서귀리 902-4

재정		자금출처	
사택	960,000원	땅 매도액	2,900,000원
교회	2,560,000원	대회보조	300,000원
화장실	120,000원	교회	720,000원
기타	280,000원	계	3,920,000원
계	3,920,000원		

<sup>1</sup>한국 연합회장 김이열 목사, 호남 대회장 임형창 목사, 동 합회 총무부장 이재춘 장로, 그리고 제주 지구장 설춘섭 목사가 참여한 가운데 헌당예배가 진행되어 진다.

<sup>2</sup>현 표선 교회 수석 장로.

<sup>3</sup>현 삼육대학교 농장장.

<sup>4</sup>봉사대원은 박해중 지도교수와 전정권, 김원삼, 채의구, 김원태, 김옥순, 장금선 등.

<sup>5</sup>어리목에서 설춘섭 목사의 집례로 수침.

일에 목표 80 제 4단계 점검차 한국 연합회장 김동준 목사와 호남대회 MV부장 김기곤 전도사가 내도하여 남제주 지구 연합 부흥 집회를 개최하게 된다.<sup>1</sup>

1978년 6월 12일에는 채의구 전도사가 이리로 전근을 가게 되고 8월 13일부터 제 2대 사역자 김용운 전도사가 부임하게 된다. 이어서 열린 10월 23일부터 30일 까지의 대 전도회는 이재춘 장로의 강의로 50명의 결심자가 생기게 되는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11월 24일, 교회로 승격하게 된다.

이어서 많은 교회 증축이 또한 있었는데 1980년 4월에 착공된 유년관이 9월 28일에 완공되어지고 1981년 5월 10일에는 약 6.68평의 유년관과 청년관이 준공 되어 청소년과 청년은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 H. 표선 교회

표선교회는 1974년 주무룡<sup>2</sup>씨가 표선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되었다<sup>3</sup>. 처음에는 가정에서 안식일을 지내게 되었고 1976년에 이르러 성산포 교회의 강대휘 장로와 고현석 장로의 도움으로 안식일 학교를 조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시민 의원 윗집에 사글세 6만원을 주고 예배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얻게 되는데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전도를 계속하던 1977년에 이르러 강대휘 장로를 중심으로 예배소로 승격이 되게 된다.

1978년 2월 13일, 현 부지를 대회의 보조 20만원으로 전세를 내고, 월 5,000

<sup>1</sup>기말 현재 침례자는 19명이고 안교생은 장년이 14명, 청년이 18명, 유년이 17명으로 총 50명의 교인으로 증가하게 된다.

<sup>2</sup>주무룡씨는 원래 강원도 태생으로서 그 당시 성산포에서 시계와 인장에 관한 사업을 하던 고현석 장로가 기술자를 수소문하던 중 알게 되어 제주도로 불러오게 된 것이다. 그는 1980년대에 박명호 파로 넘어가게 되어 현재 그곳의 전도사 직분을 맡아 일을 하고 있다.

<sup>3</sup>고현석 장로가 소개하여 결혼하게되어 분가하면서 표선에 새로운 사업처를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원씩 지불키로 함으로 새 집회소를 마련하게 되었고 1979년에는 11월 19일의 호남대회 행정위원회를 기점으로 표선 교회 승격이 된다.

1980년 2월 13일, 현 부지<sup>1</sup>를 소유자 송원익씨로부터 사들이는데, 현금 5,500,000원에 구입하게 된다<sup>2</sup>. 그 후 임기동 전도사가 임시 사역자로 1980년 7월에 오게 되었고, 그 후 건축비 총액 7천만원으로 건축평수 66평의 교회를 짓기로 하고 1992년 10월 3일 기공을 하여 1993년 6월에 준공 및 헌당을 하게 된다<sup>3</sup>.

1993년 3월 1일 정식 사역자로 윤현석 전도사가 부임하면서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1993년 6월 19일에는 1층 2층 교회로 헌당식을 갖게 된다.

## I. 어음 교회

북제주군 어음 2리 2982에 살고 있던 양부필 씨가 1968년도에 오늘의 신앙과목을 통신문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68년 10월 19일에 침례를 받아 재림교인이 되면서 그의 집에서 가정집회가 시작되었다. 첫 집회의 참석인원은 장년 4명, 어린이 8명으로 합 12명이 드렸고 1972년 11월경, 당시 어음리 이장이던 양태봉씨가 장소를 제공하여 제주시 지역 평신도 전도대<sup>4</sup>가 정형모 목사를 모시고 전도회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현재 안교생은 7명이다.

## J. 선인동 교회

1982년 2월에 정석환, 정명환 두 형제가 가정에서 가정반 예배를 드림으로

<sup>1</sup>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864-1.

<sup>2</sup>한국연합회 법인실;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리 864-1은 1983년 11월 15일자로 매입된 것으로 되어있다.

<sup>3</sup>호남합회, 제 17회 총회 보고서, 67.

<sup>4</sup>이정열, 김창수, 박치규, 김민규, 강관규.

선인동에서의 집회가 시작 되었다. 1983년 12월에는 정식 예배소로 조직을 하게 되었고 정석환 씨가 예배소장을 맡게 된다. 그 후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선흥2리 3977에 있는 자신의 땅을 헌납하고 그곳의 창고 건물을 개조하여 지금까지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녹명책에는 총 29명의 명단이 있으나 현재 그곳에 남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자는 6명이다. 현재는 이재성씨가 예배소장을 맡고 있다.

### K. 제주 학원 교회

삼육외국어 학원에서는 1990년 5월 13일, 제주지역 성도들을 염원에 따라 제주시 삼육외국어 학원 개설을 계획하고 제주시청 옆 건물<sup>1</sup>의 3,4층을 임대하여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된다.

당시 교회에 참석한 인원은 청장년 합하여 10명 정도였고 초대 사역자는 조철민 전도사였고 후임은 1993년 11월부터 조영식 목사가 오게 되었다. 현재 안교생은 25명이고 녹명된 교인은 18명이다.

### L. 신제주 교회

제주 중앙 교회는 신제주 지역 개척을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의, 6,000여 만원을 모금하여 제주시 연동 274-20에 3층 건물을 임대하고 청장년 23명, 어린이 9명을 보내어 1991년 5월 18일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sup>2</sup>.

1997년에는 제주시 연동 513-3에 소재한 대지 146평과 건물 30평을 1억 7천 5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 모든 일

<sup>1</sup>제주시 2도 2동 1179-2.

<sup>2</sup>신제주 교회는 호남합회에서 63번째로 개척된 교회로 91년 11월 2일 부로 조직되었다.

들이 이루어졌고<sup>1</sup> 합회에서는 개척자금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보조해주게 된다<sup>2</sup>.

초대 사역자로는 김영주 목사가 수고하였고, 현재는 안교생 117명, 교적에 등록된 교인 56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 M. 신서귀포 교회

서귀포 교회에서는 95사업으로 제 3차년도(93) 신서귀포 개척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93년 5월 29일에는 개척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같은 해 9월 18일에는 1차 헌금<sup>3</sup>을 하여 총 511,401,400원의 건축기금이 모아져 12월 29일에 서귀포시 서호동 1472-6번지에 부지를 마련하게 된다.

1994년 1월에는 한국연합회와 호남합회에서 4천만원을 지원하여 주었고, 동년 10월 8일에는 2차 헌금<sup>4</sup>을 하여 10월 30일에 기공식을 갖게 된다. 이 후 10월 31일의 건축 허가, 11월 8일의 공사시작으로 교회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1995년 7월 29일에 제 3차 헌금을 하고, 합회로부터 2천 만원을 차용하여 완공하고 11월 21일에 준공허가를 받게 된다<sup>5</sup>.

1995년 12월 2일, 개척 및 창립 예배를 드린 후 거듭 성장을 하여 현재는 침례자 41명, 안교생 57명의 교인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서귀포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 지역을 위해 애쓰고 있다.

---

<sup>1</sup>호행, 97-21.

<sup>2</sup>호행, 97-21.

<sup>3</sup>총 30명의 교인이 참여.

<sup>4</sup>21명이 참여하여 총 19,675,000원이 헌금 됨.

<sup>5</sup>호남합회, 제 17차 총회보고서, 67에는 기공일 1994년 11월 13일로 되어져 있고 건축평수 50평에 건축비 총액 6천 5백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 제 5 장

### 제주도 지역 재림교회의 발전에 관한 분석과 평가

#### A. 대내적인 면

1914년 초기 제주도 지역의 교인들의 헌신은 놀라울 정도의 것이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곧바로 다른 이에게 전파를 하곤 하였다.

첫째, 그들은 복음을 제일 먼저 자신의 일가인척에게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신앙을 위하여 혼례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려되었음도 물론이다. 둘째, 그들은 이웃에게 전도를 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역자를 양성해 내기도 하였다. 교회 초기, 이러한 분들의 노력으로 여러 곳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장면을 본문을 통하여 연구를 하였다. 셋째, 이들은 또한 직접 호남과 영남, 심지어는 북한의 여러 지역을 돌며 전도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자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었으나 모두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였다. 이에 반해 지금은 선교의 열의가 전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인수의 감소는 현저하여졌고 새로운 영혼의 영입은 좀처럼 늘어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생을 받쳐 교회를 지킨 여러 영혼들의 노력의 보화는 참으로 빛이 나는 것이다. 이제 제주도 지역의 재림 교인들은

이러한 영혼들의 숭고한 사상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 B. 대외적인 면

제주도 남제주군 신창리를 비롯하여 사계리, 애월리 등은 호남합회에서도 최초로 생겨난 교회이다. 초기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곳에 배치되어 큰 역사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창출해 낼 수 있었다. 해방 전 교회가 해산을 할 때에는 몇몇 신자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지만 합회에서 파견한 전도사는 있는 교회마저도 팔아 육지로 가버리는 기괴한 사건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며 해방 후 시기를 거둬하며 원래 있던 목회자들을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 됨으로서 이윽고 교인들끼리 교회를 어렵게 지켜나가야 되는 현실을 맞게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목회자들의 자녀 교육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젊은 목회자들만이 제주도로 발령을 받는 현실이다 보니 교인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 C. 발전방향

전도가 올바른 방법으로 최적의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단합된 힘과 합회나 연합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느 한 곳으로만 치우쳐도 일이 성사될 리는 만무하다.

근래의 제주도 문제의 상황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여겨진다. 일단은 바로 앞에 당면한 이 문제를 사랑의 힘으로 이겨낸 후 주님 앞에 방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관과 교회, 교인들의 단합된 힘이 제주도의 온 지역에 광범위한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히 빛이 되어줄 것이다.

## 제 6 장

### 결 론

#### A. 요약

지금까지 제주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며 역사를 정리해 보았다. 1914년 한효선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지역의 재림교회는 참으로 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그 자리를 지켜 왔다. 그들은 교회가 해산될 당시에도 신앙을 지켰으며 6.25동란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꺾지 않고 지켜왔다.

이후 한국 연합회와 서울 위생병원의 피란으로 교회가 생겨나 큰 성장을 기록하며 본 교단 내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기도 했으며 또 어떠한 경우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인의 사비를 털어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으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교회에서 따로 분교를 내는 것 등은 제주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큰 의미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후에 지속되어야 할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생각보다는 빨리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제주도내의 신자들의 불성실 등으로만 간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륙에서 떨어져 그들만의 문화와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제주인들은 참으로 오랜 세월동안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하여 견뎌왔고 발전시켜 왔다.

수많은 목회자와 전도자를 양성하였으며, 그 외의 여러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 낸 것은 제주도 지역 재림 교회의 큰 유산이 아닐 수 없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창기 위인들의 후손이 모두 다 교회에 남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교수로, 의사로, 공무원으로 여러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선조가 그토록 위대한 과업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연합회와 호남합회, 그리고 제주도 지역의 재림교회 교인들과 제주도와 제주도 지역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좀더 기획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진다면 초창기의 그 전도의, 신앙의 불길을 되살려서 현재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B. 제안

먼저 제주도내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행정 및 목회 쇄신이 필요할 것이다. 목회자의 시무 연한을 늘려 관광지에 온 듯한 일시적 열심으로 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회를 발전, 육성시킬 것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력을 강화시키되 각 교회에 연륜 있는 목회자를 파송하여 오래된 교회의 습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신자들의 전도사업과 지역사회 봉사의 활성화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교회는 계속 그 역사를 유지하여야 하며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그 지역교회에 맞는 목회자와 행정을 통하여 그 사업을 더욱 가속시켜야 할 것이며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제주도, 이곳에 다른 지역의 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려 든다면 크나 큰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제주도의 교회를 위하여 이제 제주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제주도내 교회를 활성화를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C. 결론

첫째, 제주도 지역 재림교회는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역사이셨고 그를 인해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둘째, 제주도에서 일어난 복음의 불길은 호남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졌고 제주도의 걸출한 인물들에 의하여 초기 한국 재림교회는 많은 부흥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셋째, 초창기의 큰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을 직시하여야 함을 보았다.

가장 미약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미약하나 큰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는 제주도내의 교회들과 헌신, 봉사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리라고 믿으며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 제주관련 교회지남 소식

### 교회지남

#### 1918년 4월 14쪽

정문국 목사의 통신을 접한즉 지나간 3월 18일에 일도리 예배소에 가서 열흘 동안 전도회를 열었는데 정기창씨와 전용열 씨 부부와 그외 신자 89명으로 합심하여 낮에는 세시간씩 성경을 공부하고 밤에는 특별 전도회를 한 결과로 새로 믿는 사람 10여명을 얻었고 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임의 믿는 자 중에 침례를 받은 자도 있고 혼례를 이룬 자도 있으며 전 23일 안식일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함였으므로 많은 복을 받았다더라

#### 1918년 9월 3쪽

사계리 윤영술씨의 통신

교회는 8월 7일부터 두 주일동안 정기창씨와 함께 부근 동리를 방문하였는데 특별히 감사할 것은 두 형제는 벌써 안식일마다 출석하였고 다른 몇 분도 오는 안식일에 참여하기도 약속 하였으니 이곳을 위하여 기도하심을 바라나이다.

#### 1918년 10월 14쪽

정문국 목사의 통신

9월 8일에 교회는 김성실씨와 함께 제주도에 건너가서 애월리와 대정 읍내에

서 2주간 지방에서 일하시는 정기창씨와 매서원 양총일씨와 일반 신자들과 연합하여 오전 성경 공부와 오후 방문하는 일과 밤마다 광고지로 전하며 전도하였는데 오는 사람들도 적지아니하온 중 특별히 부인계에 재미가 많사오며 대정읍에서는 우리 교인이 없는 곳이나 사계리 예배소 한 형님의 소개로 한 여관을 얻어 특별 전도회를 열고 진리를 전파하는 중에 교회는 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성실씨와 한가지로 제가 있는 곳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5일밤 동안 전도하였으나 사계리 교인중 양제선씨는 열심히 친구들을 인도하여 새로 믿기로 작정한 남녀는 10여인이 오며 21일 안식일에는 새로 믿기도 작정한 형제 4명과 함께 사계리 예배당에 가서 참석하였으며 그날에 성찬예식을 거행하였는데 일반 신자는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아 주께 영광을 돌리더이다.

### 1919년 3월 15쪽

사계리 교회 소식

저는 1월 29일에 이곳에 와서 애월리 형제와 이곳 형제가 연합하여 2월 6일까지 사경회를 열었는데 마지막 예배하는 밤에는 이곳 회당을 기와로 덮기 위하여 우선 100여 원의 연금을 규합하고 속히 역사에 착수하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정기창

### 1923년 3월

양총일씨의 장남 2년생 문실(文實)은 몇날 동안 감기로 앓다가 지나간 1월 4일 오전 9시에 주안에 잠들다 3월 11일 제주 일도리 예배소 김경모

### 1924년 3월

전도사 정기창씨의 영면을 애도함. 3쪽 짜리 서선대회 감독 스미스

## 1924년 6월 30일

제주도 방문

제주도내의 각 예배소를 방문할 차로 정동성씨와 함께 지나간 5월 20일에 경산을 떠나 먼저 제주성내 일도리 예배소에 이르러 양총일씨를 찾아 만난 후 타고 갔던 배로 사계리 예배소를 방문하여 한 사흘동안 유하며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배소에는 지나간 봄에 교사 박부실씨가 와서 아동교육에 힘쓰고 있는 중 현재 학생 수는 40명이외다. 이곳서 학부형회를 열고 학교에 대하여 의논하는 가운데 이제껏 사용하여오는 학교 건물은 몹시 낡아서 수리하기에 힘이 많이 드는고로 아주 헐어버리고 다시 새로 건축하자고 작정이 되었는데 재목에 대하여 이곳서 구할 수 없는 큰 재목은 본 미션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그 외에 모든 것은 이곳서 연보하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의 주선으로 운동장으로 사용할 곳과 밧 운동기구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또 이 예배소에는 동리사람들 중에 우리의 교리에 흥미를 두는 이가 많아졌으니 오래지않아 신자가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곳을 떠나서는 애월리 예배소로 가서 여러 형매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예배소에는 신자수가 많지 못하나 원래 믿는 분은 다 믿음에 신실하대 특별히 연금 드리는 일에 성실한 안숙씨와 호령자병이 류힘하는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은 한 부인과 꺾박을 많이 당한 송지록씨와 대정이란 곳에서 온 나이 많은 한 부인과 김윤성씨의 부인과 그 외에 남자 몇몇 분이 있어 하나님을 신실히 경배합니다. 이곳에서 한 이틀을 유하고 그 다음은 일도리 예배소로 다시 --후략

## 1924년 7월 30쪽

사역자 이동

합회사무위원회에서 대회나 미선의 권사를 폐지하고 대신 전도사로 하여금 권사일을 보게하였습니다. 이에 전도사 양총일씨로 권사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광주에서 사역하는 전도사 김응규씨를 제주로 보내고 양총일씨는 경산으로 이사오게 하기로 한바 김응규씨는 금월 2일에 제주로 들어갔습니다.

### 1924년 8월 28쪽

박부실씨 부인의 본택이 삼천포

### 1927년 3월 32쪽

금번 졸업할 신학생 --중략 --남선미선 윤영술

### 1927년 5월 31p

윤영술씨 금번에 신학을 마티고 남선 미선 전도사로 피임되야 동래교회에 부  
임

### 1927년 6월 29, 30쪽

사계리

새로이 이곳 학교선생으로 가신 김명길씨의 서신을 받은 즉 새로이 믿은 분  
이 몇 명 들어오고 학교사업이나 교회사업이 다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 1928년 5월 표지

양총일 우등졸업생

### 1928년 5월 32쪽

교회경군-의명학교 교장 사무실 취직

### 1931년 6월 29쪽

부두열

배목사는 지난 3월 19일에 제주도로 행하여 한 2주일 동안에 체류하시는 동안에 사계리를 심방하여 두 부인에게 침례를 베풀고 애월리를 심방하여 도움을 주셨으며 성내 이도리에서는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도아주시는 중에 많은 재미를 보시고 또한 김윤성씨의 장녀 덕순양과 한효선씨의 장남 종률군과의 결혼식을 주례하였습니다.

### 1932년 6월 31쪽

제주도를 방문하고

박 윤 순

각처에 계신 여러분의 건강을 비나이다. 교제는 지난 5월 7일에 제주도 방문의 길을 떠나 목포에서 배를 타고 이튿날 아침에 제주도 산지포에 도착하였습니다. 포구까지 출영하여 주신 김윤성 선생을 반가이 만나 그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을 피차 감사한 후 바로 김선생의 주재하시는 교회로 가서 잠시 쉬고 김선생의 인도로 성내 여러분의 집들을 방문하였는데 저희들은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모여 같이 예배를 보고 7일 안식일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모여 기쁜 가운데 안식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작년가을에 대풍으로 인하여 많이 상하였었는데 김선생의 노력으로 완전히 수리되었습니다. 10일에는 김선생과 함께 사계리로 가서 수일을 류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신실히 믿는 몇 분을 방문하고 사경회와 전도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자비를 보았습니다. 또한 성만찬예식도 거행하였는데 신자들 가운데 몇 분은 이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림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곳은 임작일씨 형님이 홀로 계셔서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날 밤에는 청년 5, 6명이 모여 예배를 보았는데 장차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애월리를 방문하였는데 이 곳은 이왕에 여러 사역자가 일하는 곳인바 한때에는 교회도 왕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연약한 모양입니다. 이곳에서도 수일을 위하여 낮에는 사경회를 하고 밤에는 전도회를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경회와 전도회로 인하여 이왕에 낙심하였던 이가 다시 믿게 됐고, 새로 작정한 이도 여러 명입니다. 이곳에서도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였는데 신령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제주성내로 돌아와서 5-6일간 간구하며 낮에는 사경회를 하고 밤에는 전도회를 하였는데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께서 협력해야 활동하심으로 많은 자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날에는 남자 2분과 여자 3분에게 침례를 베풀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였는데 여러 신자들은 새로운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침례를 받은 한 청년은 침례를 받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자복 하여서 일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주도는 많은 인구가 있는 곳ियो 희망이 많은 곳이오니 여러분께서는 이곳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1934년 2월 29쪽

제주도의 소식

배 혜 경

11월 27일에 애월리 교회를 방문하는 중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안숙씨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장구한 시일을 지내시면서 불신자들의 꾀박과 자녀의 반대를 다 헤치고 오직 주의 사랑의 품안에 안기어서 진실한 신앙생애를 계속하셨습니다.

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력이 쇠진하여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월리 교회 형제들이 자주 방문하여 위로해 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출석은 못하나 교회를 위하여 항상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연금을 성심으로 계속하여 드립니다. 17일에 모실포 리히수씨택을 방문하여 많은 기쁨을 얻고 30일에 리히수씨와 동반하여 사계리를 다녀서 감산리에 대한 문제로 간단히 설교하여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다시 모실포로 돌아왔다가 12월 1일에 사계리로 가서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중 많은 자비를 보았습니다. 새 신자도 몇 분 있었습니다.

2월 1일 밤 예배에 다수한 사람들이 출석하여 많은 취미를 가지고 듣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2일 안식일을 이곳에서 지키는 중 특별한 감동을 받은 것은 감산리에 계신 임병생씨는 지팡이를 잡고야 겨우 행보하는 늙은 부인 신자인데 15리나 되는 먼 곳에서 사는 신자보다도 먼저 오전 9시 반 날씨가 추웁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면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예배시간에 안식일학교연금을 모은 것 40전과 십일조 5원을 무명조각에 싸서 대회에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시에 십일조 5원을 드릴 형편이 못되는 것 같아서 물어본즉 약 1년간 모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후에도 계속하여 드리기 위하여 봉투를 참고하여 갔습니다. 과연 이 안식일에 그 일로 인하여 일반신자들과 교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씨는 본래 장로교신자인데 현재 읍내 교회 소장 박형원씨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심히 피박합니다. 씨를 위하여 많이 기도 드려 주심을 바라나이다. 안식일밤 집회근처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여 많은 재미를 보았습니다. 이 사계리 교회는 리히수씨가 주장하시며 노력하시다가 형편에 의하여 대구로 가시고 지금은 양용백씨가 교회를 돕게 되었사오니 여러분은 씨를 위하여 기도하여주옵소

서. 12월 3일에는 에월리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밤 시간에 전도회로 모이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감동을 받고 믿기를 결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곳 교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태씨와 이동일씨를 위하여 여러분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4일에 읍내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형제님께서 이 제주도를 위하여 기도로 돌봐주심을 바라나이다.

### 1935년 4월 30쪽

에월리 예배소

이곳은 신자들이 얼마동안 연약한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의 도와주심과 김영태 형님의 노력을 유망한 청년들이 나아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며 침례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림

성내교인 리성춘 형님의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한 후에 그의 열심 노력으로 지난 10월에 안식일학교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큰 교회가 서게 되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 1938년 8월 46쪽

제주도 소식

이 성 우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의 건강을 비나이다. 교제는 지난 총회시에 합회에 하명을 받고 수로천리를 건너 먼 남쪽 나라 제주도로 왔습니다. 작년 5월에 제주도 건너올 때에 때마침 폭우가 내려서 종선을 타고 태서환에 오르기 전에 가족들의 의복이 다 젖어서 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배에 올라 행장을 정돈하고 고요한 틈을 타서 기도하기를 '지금 내린 폭우와 같이 은혜의 비를 풍성히 내리사 나에

속마음을 적혀 주시고 이 몸과 마음을 받으사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성취게 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배는 밤에 10시가 되매 모진 폭우와 노한 파도를 헤치고 4시간을 가더니 파도가 너무 심하여 벽파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파도는 심하나 좀 밝은 까닭에 큰 바다를 건너오는데 우리가족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토하므로 민망하였습니다. 산설고 물선데 방언까지 달라서 얼마동안은 어렵기도 하였고 교회에 사정도 너무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호별방문을 하여 구도자를 찾는 중에 진리에 목마른 영혼들을 남녀간에 여러 사람을 찾았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성례에는 본토의 교인으로는 사업 시작한 후로 한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본토인 남녀도 여러분 나오게 되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5월 26일에 호남대회장 김항모 목사님과 각부 서기 김정호선생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주셨으며 5월 27일에 안식일에는 남녀8명에게 침례를 주셨고 성만찬예식도 있어서 믿음의 일층 생기를 얻었습니다. 교제는 이곳에 온 이후로 사계리 달마다 한두번씩 방문하고 지난해 가을에는 전도회를 하였는데 교인들과 협력하여 일함으로 여러 사람들이 새로 나와서 믿음을 지키는중이며 이번에 8명이 새로침례를 받고 성만찬예식도 있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소장 이희수선생은 10리나 되는 모슬포에 계시는데 거리가 멀지라도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십니다. 금년 봄에 새로 조직한 감산리산 곳은 처음에 한 청년이 20리나 되는 사계리에 출석을 하였었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 많이 전조를 하였고 교제도 방문가서 안식일학교 분교를 만들고 한 집을 빌어서 전도회 비스킷이 하였던바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여러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학교를 조직하였는데 이번에 남녀6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침례 받기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며 23명이나 됩니다. 성내에도 침례를 받기를 준비하는 중에 있는 분이 아직 여러 사람인데 이번에 침례를 받은 분이 합하여 20명이나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옛 생애를 물 속에 장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부흥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여 주심을 비나이다.

표 5.--매서원의 보고 (제주관련 인물 실적 분석 표)

연도	월	쪽	이름	시간	월보	구람인	ㄷ   금령슈	다른책(값)	ㄷ   금합계
1916	9	12	한효선		二二〇	二七			二四,五〇
			김종원		七九			一	四四,五
	10	12	한효선		六七	二〇	十一년 반치	一	一三,五五
	11	36	한효선		七六,一	三九년		(一,二六)	五八,八一
	12	16	한효선		三六	三一	八		五,三三
1918	2	16	한효선	一五二	一二	一〇四			78,00
			김종원	二〇六	二〇一	九十九		,五四	一五,八九
	3	16	한효선						
1918	6	16	한효선	二五八	五二	四六		一〇五,九六	四四五,六五
			김종원	一一六九	一〇八	四			一四,八〇
			양총일	三〇	九				九〇
			양총일	一五		一		二四,〇	三,四〇
			한효선	五七		一五		二四,五〇	
1918	7	16	양총일	三〇	二二	六	三	二,五〇	二,〇〇
			한효선	一三〇	一八	一六		,五〇	六九,四二
	7	16	김종원	四六	六	四	四	一,九〇	五,九〇
한효선			二五	五三		五一		五一,五〇	
	7	11	양총일	一七四	一一	二二	九	三,四五	二六,三五
한효선			一三二		五五	三		五一,三〇	
1918	11	16	한효선	二八三	五	九五			二四,一五
			양총일	二二〇	一八	三一		六,一〇	三八,六〇
1919	1	14	양총일	二三〇	二	五〇		一,八五	六八,六〇
			한효선	一五一	七	四五			六九,一五
			김종원	八九	八	一五			二四,〇〇
1919	8	14	한효선	一四二	二	四一			五四,五〇
			김종원	一,二		五			六,八〇
	2	14	한효선	三六	三	一〇〇		一,七〇	一四六,五〇
양총일			一六四	四〇	五〇		二,〇〇	七三,九〇	
김종원			二一四	六一	二三			三四,五〇	
	3	14	양총일	三一八	二二	一四五		二,六〇	一五,五五
김종원			五二	七〇	六八,〇五			六八,〇五	
한효선			七七	二	四六			七〇,八〇	
1919	4	15	한효선	七九	二	二三八		,五〇	二八〇,二〇
			양총일	二一〇	一五	六六		一,五〇	九〇,三五
	5	15	한효선	二	二〇				二五,七〇
김종원			四三	三	一二			八,四五	

표 6.--수입금액보고(제주관련 인물 실적 분석표)

교회	연도	월	쪽	십일금	12안교	13째안교	특별연금	도합
제주	1916	9월	10	,一〇				,一〇
사계리	1916	10	10		一,五〇	三,五〇		五,〇〇
제주					二,四五	二,四六		四,九一
제주	1918	4	15	,五〇	二,八七	一,〇〇	四,〇〇	七,三七
사계리	1918	4	15	,七九	五,〇〇	二,〇〇	二,二三	一〇,〇一
애월리	1918	4	15	,三〇	一,〇〇	,五一	,七〇	二,五一
제주	1918	7	15	,五〇	四,九四	一,二六		六,七〇
사계리					七,六〇	三,三〇		一〇,六三
애월리					一,八一	,四九		二,三〇
애월리	1918	4	14	六,一〇	一,〇〇	,三〇	,五〇	七,九〇
사계리				七,六二	三,九六	,九五	二,六〇	一五,一三
애월리	1919	8	15	四,三四	二,六〇	,四〇		七,三四
제주					四,五六	,六八		五,二四
사계리				一五,五九	八,四〇	,二〇	二,〇〇	二六,一九
애월리	1920	4		三,五四	一,〇〇	,三五	二,〇〇	六,八九
제주				五,八三	七,四一	一,四一	二,六〇	一七,二五
사계리				二〇,一〇	一五,七五	一,〇五	九,八九	四七,三六
애월리	1922	4	31		一〇,七九	三,三六	一〇,〇〇	二四,〇七
사계리				二,四〇	三,六〇	,六〇		六,六〇
제주					九,四八	一,三一	三,四〇	一四,一九
사계리					三,〇五	一,四〇	一,〇〇	五,四五
일도리					一〇,七四	,八七	二,六四	一四,二五
애월리	1923				一四,〇六	,一五	六,〇〇	二〇,七八
사계리				二,〇〇	七,五〇	一,三〇		二〇,八〇
일도리	1923			五,五六	九,四〇	一,六一		一六,五七
사계리				一,〇〇	五,三四	一,二六		七,五〇
일도리	1924		27	三,五七	一〇,五三	一,〇二	一〇,五〇	二五,六二
사계리				一,〇〇	四,一七	,三〇	二,七〇	一七,五七

표 7.--안식일학교 통계표(제주관련 실적 분석표)

연도	구분	교회	월호	쪽	반생	출석원	연금도합	십사제 안교헌금	연금평균
1916	추계	일도리	10	18	一六	二	四,五〇	二四五	三〇
1917	추계	사계리	10	12	一四	九	四,四〇〇	二,六〇〇	三,三一〇
	추계	일도리			一三	一〇	三,九二〇	二,〇二〇	二,三〇〇
	추계	애월리			九	六	,八七〇	,四四〇	,一〇〇
1917	동계	일도리	12	10	一三	一三	九,二三	一,〇〇	,五五
		사계리			一〇	七	一,五一	二,二三	,七一
		애월리			九	八	一,〇七	,四八	,一五
1918	춘계	일도리	5	8	一〇	九	五,八〇	一,二六	,五八
		사계리			二	一〇	一〇,二三	三,〇三	,九三
		애월리			二	一〇	二,〇〇	四九	,一八
1918	하계	일도리	8	10	一〇	一〇	六,六〇	,九六	,六六
		애월리			八	五	一,四四	,六一四	,一八
1918	추계	일도리	12	13	八	六	五,七五	,九二	,七二
		사계리			八	七	五,八八	,七〇	,七三
		애월리			八	六	一,二〇	,三〇	,一五
1918	동계	일도리	8	10	九	九	四,〇九	,四〇	,四五
		사계리			一〇	八	六,七五	一,七五	,六八
		애월리			八	四	一,三〇	,三〇	,一六
1918	춘계	일도리	4	14	一五	一四	五,二二	,六八	,三四五
		사계리			九	九	六,〇〇	二,〇〇	,六六五
		애월리			八	五	二,〇〇	,四〇	,二五
1919	동계	사계리		12	一四	一二	一三,二〇	一,五〇	,九四
		애월리			三〇	一〇	五,五一	一,八〇	,一八
1921	동계	일도리			一五	一五	二,五一	,八七	二,一二
1922		애월리			三九	三八	一四,〇七	三,〇〇	,一七
		사계리			九	六	四,二〇	,六〇	一,一七
1922	추계	사계리			五	六	三,五〇	,三〇	,三五
		일도리			一四	一四	一,五二	一,四九	二,三〇
1922	동계	일도리			四二	三七		二,三六	二,九六
		사계리			六	五	一,四八	,四八	,七二
1923		애월리			二四	一七	一四,〇六	四,四二	,二七
		사계리			一二	一二	五,〇〇	,八〇	,六六
		제주			一五	一二	一三,二六	二,〇五	一,四七
1923		제주		25	二	一〇	一一,八八	一,一八	一,五四
		애월리			三三	三二	二二,〇八	二,五〇	一,八四
		사계리			九	八	五,五〇	一,〇〇	,五四
1924	동계	제주		87	二	二	八,八一	一,〇〇	,五五
1924		제주		16	一三	二	二,〇一	一,六一	,七〇
		애월리			一三	九	八,八三	,五一	一,二六
		사계리			四五	二〇	六,四四	一,一六	一,二九
1924		제주		20	一四	一二	一二,五二	,八二	,七八
		애월리			一八	一六	三,〇三	,八〇	,九二
		사계리			二四	一三	四,五四	,五八	,八七

### 제주관련 호남합회 행정위원회 의사록

수정 94-16 신서귀포 개척 후보자 변경

93-181로 결의된 서귀포시 법환동 905-3번지를 취소하고 서호동 472-6번지로 하기로 함(대지 115평)

조정 94-43 인사이동으로 인한 제주 지역 행정위원 보선

호행 92-21 결의를 따라 제주지역 행정위원을 김상신 목사에서 새로 부임한 박래구 목사로 교체키로 함. 부임일 : 94. 3. 1

조정 94-63 제주시교회 명칭변경

제주시교회 직원회 요청에 따라 제주시교회에서 제주중앙교회로 명칭을 변경키로 함. 시작일 : 94년4월

94-118 1) 제주 모슬포교회 수리비 보조 금액:100만원 자원: 전도자금

2) 광지교회 구제비 금액:20만원 내용:지역 불우 노인 구제 활동  
보조

자원:구제비

구제비 94-177 표선교회 금액 : 280,000원

내 용: 93년 수확운동 표준초과금을 교회 자체 구제비로 요청함으로

자 원 : 구제비

96 -147 봉사 요청

다음과 같이 교회에 임시 봉사를 요청키로 결의함

성 명	생년월일	봉사교회	봉사 기간	교통비 보조	비 고
김수강	66.11.21	신서귀포	96.5.1~	월 500,000원	앤드류스대졸
김재환	47.01.26	등정리	96.4.1~	월 400,000원	삼육대학 재학

83-68 : 서귀포 교회 창고 증축

서귀포교회에서 사택 뒤쪽으로 창고를 증축 하기로 요청이 들어 왔으므로 결의함. 건평- 6평, 용도-70만, 자원 -본교회 현금

84-121 한림교회 개척자금

제주시지구 한림개척자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결의함 50만원

84-74 함덕교회 사택수리 보조

함덕교회 사택수리를 위하여 100,000원을 보조하도록 함

86-150 : 괏지교회 고 장정조 할머니 장례비 150,000원 (구제금에서)

88-154 보조금

교 회	보조금	이 유
김제 교회	500,000	사택부지 매입
성산포 교회	6,000,000	6.25 기념관 보존 위함

88-157 총회 안식일 헌금 사용 목적

성산포 6.25 기념관을 위하여

88-119 제주시 교회 도루가관 건축승인

주 소 : 제주시 2도 1동 1549-8      면 적: 10평      구 조: 벽돌 스투브

비 용 : 16,000,000      지 원 : 교인헌금

88-83 교회 및 사택 신축 승인 (성산포 교회 )

소 재 지	지 번	구 조
제주도 남군 성산읍 오조리	1031-7	오지벽돌 스투브(제주산 송이덮개)

1층      155.62 유년관 및 사택

2층      156.32 교회당

중층      37.38 층개 및 침례탕

합계      351.32 (105평)

건 축 비 : ₩ 60,000, 000

자 원 : 교인 헌금

88-84 보조

성산교회 신축                      1,000,000

성산교회 사택 신축              3,000,000      계 : 4,000,000





조 건 : 삼육외국어학원에서 속히 갚도록

90 - 58 서귀포교회 증축 결의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320-14 지 목 : 대지

건축평수 : 167평 (550㎡) 건축비용 : 35 000 000원 공사방법 : 직영

자 원 : 교인헌금 31 000 000 합회 지원

90 - 97 예배소 조직 승인

제주 삼육외국어 학원 교회 위치 : 제주도 제주시 2도 2동 1179-2

조 정 91 - 182 . 제주지역 예식 및 제주시 담임

한재수 목사를 91년 9월 1일자로 제주지역 예식 및 제주시 담임.

김치호 전도사 지도목사로 결의함.

인사이동

91 - 48 2차 인사이동 결의

김치호(인턴) - 제주시 교회

91 - 49 서귀포 교회 담임 주영종 목사에게 제주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함.

91 - 201. 아래와 같이 합회가 대전도회들을 보조키로 결의함

서귀포 1,000,000 (10.4 - 12 , 홍명관 강사)

## 보 조

91 - 196. 신제주 개척을 위해 합회에서는 20,000,000 원을 개척자금에서 보조키로 결의함 자금 사용처는 사택 구입 자금으로함.

## 보 조

91 - 21 서귀포 교회 건축 부족액 보조 금 액 : 2,000,000원

자 원 : 비 십일금 자금

92 - 21 호남합회 16회총회가 제주행정위원을 제주시교회 담임으로 하였으나 제주지역 선임목사로 정정 결의함.

## 보 조

92 - 182 교회 건축을 위해 합회가 보조키로 결의함.

표 선
6천만원
1천만원

## 건 축

92 - 183 제주 표선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의함.

장 소 :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864-1

건축구조 : 시멘트벽돌 슬라브

건 평 : 218㎡ (1층 34평, 2층 32평 총 66평)

건 축 비 : 60,000,000원

자 원 : 교인헌금 50,000,000 원

합회보조 10,000,000 원

93 - 181 신서귀포 개척

장 소 : 서귀포시 법환동 905-3번지

대지면적 : 200평

개척비용 : 대지 구입비 60,000,000원

자 원 : 연 합 회 20,000,000원

합 회 20,000,000원

교인헌금 60,000,000원(현재 49,851,000원 현금)

차용

93 - 15 한림교회 교회 임대를 위한 차용

금액 : 2,000,000원

조건 : 건축 신축하게 될 때 합회 보조로 하나 더 못한 조건이 될 때 합회에  
서 입금키로 함.

97-21. 부동산 매입

교회의 요청에 의한 부동산 매입을 다음과 같이 연합회에 신청키로 결의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금액	자원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41	자연녹지	170평×134,000원	2,400만원	교인 헌금
제주시 연동	513-3	대지	483m <sup>2</sup> (146평)	1억7,500만	"
		건물	95.82m <sup>2</sup> (30평)		

## 97-64. 대여금

교회의 요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승인키로 결의함

교 회	대 여 금	목 적	기 간	비 고
함덕 교회	5,000,000	교회 사택 건축	97.3.1~12.31	

## 97-135. 교회 보조금

교회의 요청에 다음과 같이 보조키로 결의함

모슬포 청년관 건축 : 4,000,000원, 등정리 사택 수리 : 300,000원

## 97-159. 교회 조직

예배소들의 요청에 의해 교회 조직을 다음과 같이 승인키로 결의함

## 97-165. 보조금

1). 합회사택 신축기념 및 어버이날을 기해 주월동민 경로잔치 경비로 500,000원을 구제금에서 지출키로 결의함

## 2). 개척자금 보조금

교 회	목 적	보 조 금	비 고
신제주교회	교회 부지 및 2층 건물 매입	2,000만원	호행 97-21

## 97-178. 제주 야영장 매입

제주 야영장용 부동산 매입을 다음과 같이 연합회에 신청키로 결의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가 격
제주도 북군 조천면 선흘리	산 14	임	10,000평	2억원

자원 : 제주 지역 교인 헌금 40,000,000원

호남합회 50,000,000원

한국연합회 160,000,000원 합계 2억 5천만원

비용 : 매입시 합회 2천만원과 제주지역 헌금 2천만원 으로 하고 차액은 개발  
비용으로 하기로 함

#### 97-202. 제주 야영장 부지 매입 변경

호행 97-178호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연합회에 신청키로 결의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평)	비고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	산 4-1	임야	3,880 (1,174)	
"	산 5-1	"	20,167 (6,100)	
"	414	"	1,778 (538)	
"	416	"	3,183 (963)	
"	428	"	1,587 (480)	
"	410	전	1,359 (411)	
"	417-1	"	100 (30)	
"	427	"	740 (224)	
"	429	"	3,008 (910)	

매입가 : 10,830평 × 18,000원 = 194,940,000원

#### 97-220. 교회 보조금

제주 학원 교회가 신축 입당함에 강대상용으로 2,000,000원을 보조키로 결의  
함

#### 98-167. 위원회

제주 중앙 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한 수습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키로  
결의함

위원장 : 한재수 총무부장

서 기 : 최영태 선교부장

위 원 : 김정태, 김재호, 이병합, 박래구

제주 어린이집 수습을 위해 위원장과 서기를 98.7.10~12까지 파견하여 수습  
토록 하고 협회가 제시한 방안을 따르도록 한다.

98-180. 조정

장소도 없고 이름뿐인 다음의 집회소를 정리하기로 결의함

함열(이리), 장계(안천), 임피(익산서부), 영산리(김제), 오정리(정읍서부), 봉덕  
(고흥), 미암,낭주(영산포), 유치(장흥), 북평,홍촌(해남), ACT(광주), 애월, 선인동,  
어음(제주) 총 145집회소에 15곳을 정리하여 130곳

\* 부동산 부지가 있는 곳은 주소록 뒷면에 기재토록 하고, 가능한 부지를 매  
도토록 한다.

## Chaiju Island, Korea

(*The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s에 난 기사. July 6, 1916.)

C. L. BUTTERFIELD

CHAIJU ISLAND, or as it is sometimes called, Quelpart Island, is the largest island belonging to Korea, and is about 120 miles to the southwest of the peninsula. The first authentic record of the island is in 477. A. D., when the little kingdom of Tam-na, as Chaiju was then called, sent an envoy to the court of Pak-je. one of the three kingdoms existing on the peninsula at that time, with gifts. The people of the island were strong, and their history has been one of war and carnage. No more than sixteen years ago there was an uprising, and all the Catholics, about six hundred in number, were put to death in two days.

The island is about thirty miles wide and fifty long. Hal-la mountain stands in the center, and is the second is covered with lava stone that was at some early dat thrown from the crater of this mountain. There is so much of this none that, although the fields are very small, they all have high stone fence about them, house lots are inclosed with the same, and all roads are kept within bounds by the ver-ending lava stone. The population of the island now numbers about 200,000.

Early in the year 1914 a canvasser went to this island, and one day met a man who had been drinking liquor. When the agent say that the man was intoxicated. he was not anxious to sell to him, but the man wanted to buy: and he did buy a copy of everything the canvasser had,- "Thoughts ou Daniel and the Revelation." "Helps to Bible Study." and a pamphlet on the "Nature of Man, and three copies of the magazine. Later this man discovered that while intoxicated he had bought Christian literature, and not desiring to spend his money in vain. decided that, although he knew nothing of Christianity. he would be-come a Christian and study the literature. To be a Christian he thought it would be necessary to attend church, so he went to the only church in that part of the island, supposing that it was the church that had published the literature he had published the literature he had bought.

For four months this man was faithful in attending church and studying his literature. But one Sunday the pastor notified the congregation that, without doubt. workers of the Sabbath church would soon come to that place, and for them to have nothing to do with the false teachers.

At the close of the meeting. the man went to the pastor and said. "Pastor, are we not the Sabbath church? I do not understand your warning." To this the pastor replied that they were not keeping the seventh-day Sabbath, but were keeping the resurrection day. This was a surprise to our new Christian, and he replied. "Why, Pastor, since I became a Christian I have studied much and have been trying to lead other souls to Christ, telling them that they should keep the seventh-day Sabbath." This was too much for the pastor. He

became angry, told the man that he was a deceiver, an employee of the seventh-day church, coming in there to break up his congregation.

Until this time our new Christian had never heard that there were other churches, and knew nothing of the Seventh-Day Adventists. But he was no longer allowed to attend that church, and so it seemed best for him to move to another part of the island. He went to a place called Sa Kae Re, where there are about five hundred houses, but not a Christian inhabitant. He rented a house and with his wife decided to keep the true Sabbath, worshipping on that day in their rented house. However, the people of the place said that they would not allow a Christian to hold religious services in that village.

About one mile back of the village there is a rocky mountain, and high up on one side of it is a large cave. Our man now decided that as he was not allowed to worship in what was called a Christian church or hold meetings in the house in which he was living in that village, he would go to this cave and worship God on the day he had blessed and set apart for his worship.

Each Sabbath morning for three months he, with his wife, would leave his house before daylight so that people would not see them, and spend the day in this cave, studying the Word of God, praying, and singing. As they were spending one Sabbath in the great cave, a natural cathedral, some people from the village came to the cave sight-seeing, and were surprised to find a man and his wife there studying the Bible. They soon became interested in what was told them and returned the next Sabbath, bringing others with them. Thus an interest was aroused, and by the end of that month a man of

influence in the village had also decided to become a Christian, and he said that they should hold meetings in the village from then on, and he would see that they were not molested.

In these native villages there are no large houses suitable for meeting purposes, most of the rooms being eight feet square, and so only a few persons can assemble. The man of influence, Mr. Yun by name, said that as he had pent most of his money for drink, he would now spend what he had left to build a church in which they could worship God. He had a little piece of ground that had been given to him by his father for his house lot, which he had a little church that would seat about thirty persons, but the people of the place strongly objected to having a church building erected there. They were so determined that he should not build that he said he would change his plan and make the new church the largest building in the place, capable of seating at least one hundred people.

That building is now about finished, and the expense has been borne mostly by Brother Yun, although it has taken almost all his worldly possessions. The building is well located, and besides the meeting-room there are living-rooms for the native worker who will labor there for a time. Brother Yun, anxious that this building should be used only for the proclamation of the third angel's message, has given a deed of the land and building to the Korean Mission.

On the last Sabbath in February, in company with pastor R. C. Wangerin, who is director of the work in that part of Korea, it was the privilege of the

writer to visit this place and by a rocky cliff in the ocean baptize eleven candidates, including the above-mentioned two brethren. These have taken a firm stand for the truth. A Sabbath school of nineteen members has been organized, and many others have promised to be-come Christians. The opposition that was manifested at the first is rapidly giving place to friendliness, and we trust that a strong church will be built up there, and many souls won for Christ.

The people told us that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a Westerner had ever visited their village, and from the way they flocked to our room, or gathered in groups by the road as we passed, or pecked through the stone walls at us, we could easily believe that they had never seen our like before.

The journey to the island has to be made on a small boat which runs when the wind is not too strong, which is the case much of the time, as we found out. To one who is not a good seaman the trip at sea is not at all pleasing, and even Pastor Wangerin, who is a good sailor, broke his record this time and experienced the pleasures(?) of sea-sickness while going to the island.

At the time a steamer was scheduled to leave, we returned to the port, but had to wait just five days in a small room in a Korean inn before the ship came. Our food supply had been exhausted even before we returned to the inn, and all we could get to eat was rice and eggs. Those were days of anxious waiting, yet God's ways are not our ways, and even those days of "exile" proved to be days of blessing to us. We are glad to have visited the

place, and trust that much will be accomplished on the island during the present year. Two native evangelists are now stationed on the island, and many are anxious to know what they must do to be saved. Pray for the work in this part of the vineyard.

#### Mission Note

A THREE months' training course has been arranged for church elders, native teachers, and Bible workers in Porto Rico. Opportunity for work among the people will be afforded during this time, so that practical experience may be gained while studying the principles of the message and better methods for service.

HAPPINESS eludes every searer it. but comes quickly and abundantly the one who seeks to bestow it upon some one else. The searcher for happiness may get wealth, and power, and fame, but none fo these advantages will avail anything in getting happiness. Even from friends if cannot be obtained: for happiness comes from what is given out rather than from that which is gathered in. Loving, unselfish service, the persistent, enthusiastic effort day by day to bring happiness into the life of any man, woman, or child. No sorrow of heart, no doubt of the future, no restlessness or aimlessness of the present, no loneliness or bitterness of soul, but will yield and be resolved into joy and peace and purpose as soon as the days are filled with labors of love—as soon as the eagerness to get happiness is replaced by an eagerness to give it to others. - Eugene Thwing.

## 제주관련 주요 인물

### 1. 교회경(삼육대학교 90년사 878, 818, 154)

그는 1928년 3월 22일 의명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과 1929년에는 대학 재직으로 수고하였으며 1931년 1월 중순 합회 평의회가 순안의명학교 병설 신학교를 서울 합회 본부로 옮기기로 결의하고 동년 4월 6일 서울로 이전을 하는데 교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신학생들을 포함한 60명이 상경을 하였고 이때 통신학교에서 일보는 교회경 선생도 같이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41년 4월 교회지남 16호 인사란을 보면 교회경 선생이 2월 16일부로 시조사 편집부 책임자 발령을 받아 수고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김재신 목사의 회고에 의하면 연합회 청년MV 부장을 지냈다고 한다.

### 2. 한효선

1883년 음력 4월 8일 전남 진도군 지산면 해창리에서 태어난 한효선은 1895년 상경하여 당대에 유명하던 한의사에게 사사를 받고 제주도에서 개업을 하게 된다. 풍수지리와 역학에 능했던 그는 개종 후 선교사들에 의하여 ‘무당이 개종을 하게 되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1915년에 침례를 받은 한효선은 제주도에서 각종 전도활동을 벌이던 중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고 서울 매서원에서 문서전도 감독직을 맡기도 하였다. 1919년 전도사로서 중국과 강화도에서 복음 활동을 했고 특히 원산의 신고산에서, 1930년에는 충북 제천읍 청풍면에서, 33년에

는 충남 청양과 공주, 36년 나주에서 교회를 개척 또는 지도하였다.

1943년 생활고에 지친 그는 다시 한의사를 시작하였고 조국광복이 있기 얼마 전인 1944년 음력 12월 3일에 별세하였다. 슬하에는 3남 3녀를 두었다.

1914년초 문서전도자 김종원씨가 제주도에 건너가 문서 전도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한(사업하다가 불이 나서 화김에 술을 마심) 어떤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그 가 매고 가던 책 상자를 툭치며 이거 뭐야 하고 묻기에, 복음이요 한 즉 복음이 뭐요?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이요. 믿으면 복받아? 이러한 우스운 회화가 교환된 후, 그 술 주정꾼은 김종원씨가 가지고 간 책들을 몽땅 샀다. 술에서 깨어나 보니 웬 상자가 머리맡에 있어서 열어보니 무슨 책이 가득이나 들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책을 읽어보기 시작하니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전형적인 학자 타입이었던 그는 김종원의 책을 그 자리에서 며칠동안 한번에 예언의 신을 다 읽고 난 후 개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친구들에게 김종원씨를 소개하여 그들도 믿게 하였다. 후에 김종원씨가 한효선씨에게 복음을 전하므로 장로교에서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 이단이라고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한 채 개종을 하자 장로교의 목사와 교인들에게 물매를 맞았다고 한다. 그들은 1914년 북제주 신창리에 작은 집회소를 열었다. 1915년 2월말 11명이 전시열 목사의 주례로 모슬포에서 침례를 받으니 담 너머로 재림기별을 던져 넣어 이를 주어 본 한문선생 김동대씨가 세 천사의 기별을 받게 되었다. 한효선씨는 계속 문서 전도일을 하며 호남 충청 지방에 복음을 전한 복음전도의 역군이였다. 한효선씨는 그 후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집회를 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외국의 선교사를 맞는 것 이상으로 크게 영접하여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큰 집회를 가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도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던 중 당시로서도 출중했던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생계문제가 대두되면

서 말년에는 다시 한의원을 개업해 생계를 꾸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부분을 한효선의 딸은 평생의 한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한효선씨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임창일, 김윤성 등이고 임창일의 외손 민영기 목사(동중한 합회 분당교회 담임목사)가 한효선의 외손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에 거주할 당시 김윤성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기도 하였다.

한효선의 부인은 제주 고씨 성을 가진 분으로 그 아버지 고천부는 19세에 진사에 올라 벼슬을 하기도 했던 전형적인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또한 전형적인 학자 타입의 모양새를 갖춘 한효선과 결혼하여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개종을 하게 되자 이단이라 생각하여 꾸준히 장로교회에서 사랑으로 봉사 하던 중, 남편이 계속 장로교를 고집하면 이혼이라도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알게된 후 개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딸 한명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남편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도 생활을 하며 힘이 들었지만 항상 기도과 말씀으로 남편을 도왔고 교회를 보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 3. 윤영술

1927년 3월 의명학교 신학과 5회 졸업

### 4. 양총일

1889년 2월 16일 제주도 북군 제주읍 일도리 1323번지에서 4남으로 출생하여

1912년 재림교회의 문서 통하여 진리를 받고 2월 15일에 전시열 목사에게 침례

1917년 3월 20일 김만 씨 2녀 김인선과 결혼

1919년 4월 1일 순안 신학교에 입학하고

1928년 의명학교 양총일 우등졸업과 동시에 전도사에 임명

1921년 제주읍 일도리 교회에서 목회

1968년 6월 14일 자택에서 별세

## 5. 이회수

이회수씨의 신앙배경은 감리교에 있다. 1910년경 그가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서울에 가면 감리교회에서 세운 병원이 있으니 이곳에서 감리교인이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일단 교회에 들어가면서 목사로부터 하라”고 충고를 해줘 감리교를 찾았으나 당시에는 제주도 내에 감리교회는 없고 장로교회가 있어서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안식일 교회에서 대전도회가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공중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이회수씨는 자신이 다니던 장로교회에서 제명을 당하게 되어 재림교회로 입교하게 된다.

그리고 해방 직후, 당시 사계리 교회에서 봉사하던 이회수씨가 제주시 교회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시 교회로 가 보았는데,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보았는데 마침 친했던 친구라 교회를 되찾을 생각으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데 다짜고짜로 주먹으로 치며 내쫓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교회의 명의로 다시 복원을 해 주었다고 한다. 약 2년간 일도리에서 교회를 꾸려나가다 후에 사계리 교회로 다시 돌아와 교회를 지킨다. 이회수씨는 슬하에 3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점순, 남북순, 이동순 이다.

## 6. 김찬익 대위

당시의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김찬익 대위는 안식일이면 교회에 나

와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고,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바가 없고 다만 그가 임기를 마쳐 육지로 돌아갈 때 그 서운함을 달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모슬포 교회에서는 송별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 7. 장정조

안식교 할머니라 불리우던 장정조 할머니는 한효선씨 부인의 이모의 딸로서 한효선씨가 전도사로 원산에 있는 신고산에 파견을 할 때 같이 따라나서기도 하였다.

## 8. 송종욱

송종욱 할머니는 호남합회 복음의 선구자 한효선 씨의 부인의 이종사촌지간이다.(한효선씨의 외손녀의 증언, 현 동중한합회 분당교회 담임목사 민영기의 사모) 그녀는 문서 전도인이었으며,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감옥생활을 하기까지 한 사람이다. 송진욱 할머니는 증언에 의하면 그녀는 한림으로 들어가기 전 이혼을 하였는데 신앙을 지키는 문제로 인한 것이었고 한림으로 이사를 한때는 신사참배 문제가 막 대두되기 시작하던 1935년경이었다고 한다.

## 9. 정춘홍

정춘홍은 오오사까 출생으로 1945년 일본 패망 후 15세가 되던 해 제주도의 성산포 고성리로 들어와 야간학교를 다니며 한글 등을 독학으로 수학했고 졸업 후 난산 초등 학교에서 1년간 임시강사를 하다가 21세 되던 해 위생병원이 성산포로 피난을 와서 진료를 하던 시기에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던 중 같은 동갑내기인 이경자 사무원으로부터 구역반 예배에 참석을 권유받아 처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던 중 칼로 목을 누르며 죽음이나 신앙이나를 대답하라는 어머니의 강요를 이겨내고 부산으로 이주하여 반내현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의 신자이자 당시 위생병원 차량 공장장이던 김성수 장로(현재 미국 거주)가 연합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모은 돈으로 서울로 들어와 신학을 공부하여 1955년 7월 24일 신학과 제 16회 졸업을 하게 된다. 이후 그녀는 모슬포 교회와 성산포교회에서 전도부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 10. 채의구

현 호남합회 동산 교회 담임목사.

채의구 목사는 1941년 1월 6일 일본 대판에서 태어났고 1944년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후 1946년 부터 장로교회에 다니다가 1959년 오충의 전 목사와 함께 장로교에서 우필원 목사의 대 전도회(1959년 7월) 때 개종하여 오만규 교수, 오충의 목사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군대에서는 집총 거부 문제를 인하여 감옥에서 고생을 하였고 1974년 신학과에 입학하여 1977년 1월 1일 부로 호남합회에 목회자로 채용이 되어 호남합회 총무부장을 2번 역임하기도 하였다.

## 11. 오만규

문학박사, 삼육대학교 신학부장, 삼육대학교 대학원 교수

선교와 사회문제 연구소 소장, 한국신학대학협회 감사

1941년 일본 오오사카에서 출생하여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로 건너와 제주시 오현 고등학교를 다니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하여 휴학을 하던 중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1962년 신학과 입학, 1965년 12월 26일 졸업을 하였고

1966년 3월 성애 삼육 중학교, 한국삼육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삼육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1970년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하여 문학석사학위를 수여받고 1977년 필리핀 세미나리에서 MA, 1983년에는 M.Div., 1989년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수여 받는다. 이후 1990년에는 Andrews 대학교 교환교수를 역임하였다.

## 12. 한성보

현 삼육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회학 박사

1946년 12월 10일 성산읍 오조리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고 정양운 목사와 함께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성산포 재림교회에서 개최하였던 영어, 음악 강습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 1963년 11월 23일 침례를 받게 되었다. 196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7년 삼육실업초급대학에 입학하였고 1968년 신학과에 편입하여 1973년 7월 28일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게 되었다. 그 후 1983년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M.A) 졸업, 1985년 Far East Division Seminary M.Div. 취득, 1992년 AIIAS에서 D.P.Th 취득하였다. 한편 1973년 8월 10일부터 1976년 8월 20일까지 영남합회 부산 서면교회에서의 시무를 시작으로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삼육대학교 생활관장, 1994년 교목실장, 1995년 학생처장, 1996 기획실장을, 1997년부터 현재까지 대외협력 처장직을 수행하며 봉사하고 있다.

## 13. 정양윤

현 서중한 합회 퇴계원 교회 담임목사

1945년 10월 16일 제주도 성산포에서 출생하여 성장,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성산포 재림교회에서 개최하였던 영어, 음악 강습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

이 계기가 되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1963년 7월 13일 한성보 목사와 함께 침례를 받게 된다. 신학은 1966년에 신학과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고 1973년 졸업과 동시에 광주 동부교회로 발령을 받아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

#### 14. 김수진

현 서중한합회 상계동 교회 담임 목사

1945년 2월 15일 출생하여 6살부터는 장로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성경통독을 하다가 안식일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제주시에 있는 재림교회를 발견하게 되고 제주시교회에 출석, 20세에 침례를 받게 되었다. 제주 오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대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28세에 신학과에 입학하여 35세에 졸업, 목회에 나서게 되었다.

#### 15. 강정수

현 동중한합회 마석 교회 담임 목사

1957년 11월 15일 제주도 함덕에서 출생하여 유년 시절부터 동네의 형들을 좇아 어린이 성경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73 7월 7일에 호남삼육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했고 졸업 후에는 고향에서 자급사역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8년만인 1984년 신학과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했고 1988년부터 목회직에 임하게 되었다.

#### 16. 고기림

현 동중한합회 태백장성교회 담임 목사

제주도 성산포에서 1968년 8월 26일 태어나 모태 신앙을 하게 되었고 1984년 서울삼육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수학을 한 후 삼육대학교에 입학, 1995년 학원교회

에서 목회직을 시작하였다.

## 17. 채안기

채의구 목사 형으로서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호남신학교(목포소재)를 졸업한 후 우필원 목사의 전도회때 개종하여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돌보았고 문서전도를 통하여 여러 영혼을 구원하였다.

## 18. 강석배

성산포 출신으로 장로교에서 개종하여 호남삼육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고 신학과를 졸업한 후 목회를 하다가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다.

## 19. 부문중

현재 삼육대학교 생물학과 부교수. 1957년 6월 1일 제주시 출생, 제주시 제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8년 삼육대학교 생물학과를 개설할 때 강사로 임용되었으며, 1977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이래,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1987년 석사학위, 1990년 박사학위(Dr. of Science)를 수여 받았다.

## 20. 정재훈

1960년 6월 4일 성산포 출생. 성산 중학교를 거쳐, 1975년 작은 아버지 정양윤 목사의 권유로 호남삼육고에 입학하여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1979년 삼육대 약학과에 입학하여 1986년 졸업하였으며 1986년부터 1995년까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며 1989년 석사학위, 1995년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현재 삼육대학교 약학과 조교수로 봉사중이다.

## 21. 정미숙

1968년 3월 27일 성산포 출생.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신안을 받아들인 그는 성산중학교, 세화고등학교를 거쳐 1987년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고 1992년 졸업과 동시에 서중한 합회 삼안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1년간 봉사하였고 1993년에는 서중한합회 서적부에서 봉사하였다. 현재는 호남합회 박만주 목사와 결혼하여 성산포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A. 서적

이영린. 한국재림교회사. 서울: 시조사, 1965.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2.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호남합회. 제 17차 총회보고서. 1995.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법인실 자료들

제주도청 관광과. 제주관광메뉴얼. 제주: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95.

고정일 외 다수. 한국세계백과사전. 서울: 동서출판사. 1992.

제주도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시행안내집. 제주도: 제주도 인쇄공업협동조합, 1992.

### B. 정기간행물

편집부. 교회지남. 1918년 9월, 3.

편집부. 교회지남. 1927년 3월, 32.

편집부. 교회지남. 1918년 4월, 14.

편집부. 교회지남. 1934년 2월, 29.

편집부. 교회지남. 1951년 12월, 71.

편집부. 교회지남. 1951년 12월, 71

편집부. 교회지남. 1951년 12월, 93.

편집부. 교회지남. 1951년 12월, 78.

편집부. 교회지남. 1951년 12월, 93.

편집부. 교회지남. 1951년 12월, 74.

편집부. 교회지남. 1932년 6월, 32.

편집부. 교회지남. 1935년 4월, 30.

편집부. 교회지남. 1935년 4월, 30.

편집부. 교회지남. 1924년 6월, 30.

편집부. 교회지남. 1919년 3월, 15.

편집부. 교회지남. 1934년 2월, 29.

### C. 개인 면담

한명희. 개인 면담. 서울, 1999년 12월 20일.

한효선씨 딸. 전화 통화. 분당, 1999년 12월 7일.

강혜령. 개인 면담. 제주, 1996년 3월 8일.

이창호. 개인 면담. 제주, 1996년 4월 27일.

양명희. 개인 면담. 이천, 1999년 12월 8일.

정병철. 전화 통화. 제주, 1999년 12월 8일.

오봉주. 전화 통화. 서울, 1999년, 12월 10일.

소병선. 전화 통화. 제주, 1999년 12월 5일.

## 초 록

### 제주 재림교회 초기 선교사의 일 연구

고수림

조직역사전공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의 완성은 기록되어진 역사를 간직하며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역사의 총체적 정의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역사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다. 그저 그 날 그 날을 분주하게 살아왔을 뿐이었고, 교회에서의 모든 사업 역사 그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들에 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제 1장에서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 문화 지리적 배경을 다루었으며, 제 2장에서는 제주도 지역의 재림교회의 선교사를 연대기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였으며 각 연도와 사건별로 조사 연구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그 결과

1. 호남합회의 복음의 불길은 제일 처음 제주도에서 시작되었다.
2. 초창기 믿음의 선구자들은 학식이 높았으며 전도의 열의가 남달라서 금새 제주도내 여러 지역으로 불길이 확산되었다.
3. 이들은 또한 제주도에 그 열의를 국한시키지 않고 호남의 다른 지역과 영남과 이북 지방에까지 그 복음의 빛을 전하였다.

4. 교회가 해산되고 많은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믿음을 굳게 지킨 절개의 선조들이 있었다.

5. 6.25동란을 통하여 한국의 다른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도리어 제주도는 교회 부흥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이 생겨난 교회도 있다.

6. 최근의 호남합회와 제주도 지역 재림 교인들의 불일치되는 모습들을 이겨내는 중대한 결심이 앞으로의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과정들을 염두에 두시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시간의 잣대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에, 그 분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재림성도들은, 그 분의 위탁하신 바 거룩히 구별된 교회의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성품에 비취져 미래에의 모든 것들을 감안한 긍정적이며 정확한 계획아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맹목적이며, 무분별하며, 무계획적인 사업의 수행은 결단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생각하며,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그 교회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지니며 발전 시켜야 할 의무는, 소속된 그 교회의 신자는 물론이요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서로 격려하며 발전, 계승시켜야 할 자산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 자료가 앞으로의 교회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Early Mission History of Jeju Seventh-Day Adventist Church**

Koh, Soo-Lim.

Theological Seminary

Korean Sahmyook University

Systematic History Major

We can say that the complement of the recorded history is kept, succeeded, and developed. It is total definition,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it is even everything.

So far, we have lost history so much. We have just lived very busy day by day. All the working of the church business was devoted and planned church life for the working of the instant method.

The church I of this study is dealing with the history, society, culture and geographic foundation in Jeju. The Chapter II is studied on SDA church mission history in Jeju area which is chronically arranged and systemized. The term according to events of the history is researched and estimated. In result,

1. The South West Korean Conference gospel fire was started in Jeju at first.
2. In the beginning the elite of faith were anxious and energetic than anybody that the gospel was spreaded in Jeju immediately.
3. They didn't just satisfied by spreading the gospel in Jeju but they went to south west and took the gospel to the north.
4. The church was broken up and many church members backslided, but there were patriarches who kept them faith strongly.
5. During the korean war, the other regions in korea had damaged a lot, but the church in Jeju received the turning point of the spiritual revival, so there were opened many new churches in this area.
6. In this time, there is a problems between the South West Korean Conference and Adventists in Jeju which they have to overcome in order to get the power for the future spreading of the gospel.

We think of the wonderful providence of God who is trying to make a church, and we have to forsake geographic, social, cultural selfishness and develope our churches with attachment and pride.

The duty for the development must be the work for the christians belonging to their churches, not only, church leaders but also all of the God's people with encouraging one another, developing, succeeding. I hop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develope churches in the future.